眞理 正義
自我 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趙文富 주 간 韓錫祉
편집국장 徐周賢

발행소 : 제주대학교신문방송사
<690-756> 제주시 아라 1동 1번지
전 화 : 54-2278~9 / FAX 56-2204
인 쇄 : 한 라 일 보 사

제586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8년 3월 9일 월요일

새 가족 2천6백62명 맞아

2일 야외음악당서 입학식 거행

1998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일 신입생 2천6백62명과 조문부 총장, 각 처·실·국장, 각 단과대 학장, 교수, 학부모,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 음악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허가 선언과 신입생 선서, 총장 입학식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는데 지난해 2천4백85명보다 1백77명 늘어난 2천6백62명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신입생들을 대표해 인문대학 조은정(영어영문)양은 "98학년도 신입생 일동은 제주대학교 재학중 학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전심 면학함은 물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할 때에는 학칙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할 것"을 선서했다.

조문부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최후의 학창생활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21세기는 어떠한 세기인가를 학문을 통하여 인식하며 체험을 통하여 익혀야 하는 시대적 운명을 가지고 이 대학에 입학했다"면서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서 진리의 화신이 됨으로써 영원한 삶의 진가를 터득하고 자신의 행복과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등 5개 대학원과 행정·경영대학원·농과대 부설 특수과정에도 각각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다음은 각 대학원 및 특수과정 입학 현황이다.

일반대학원=1백35명(석사과정) 45명(박사과정), 행정대학원=27명(석사과정) 64명(고급관리자과정), 경영대학원=57명(석사과정) 66명(최고경영자과정), 교육대학원=1백32명(석사과정), 산업대학원=60명(석사과정), 농과대 부설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1백4명

송은실기자

우리 대학-제주도

9개 협력사항 합의

발전기금 40억 출연·도정자문 교수단 구성 등

'제주대학교와 제주도 공동협력 2차년도 공동기자회견 및 도정자문교수단 구성간담회'가 조문부총장 및 신구범지사, 도와 우리 대학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26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조총장과 신지사는 이날 △그린벨트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건립 현안해결 공동 노력 △제주대학교 발전지원협의회 구성 및 내년부터 2002년까지 매해 10억원씩 발전기금 출연 △세계 섬문화 축제 공동 협력 △도정자문교수단 구성 및 지역문제해결센터 설치 운영 △제주출신 해외동포와의 유대강화 및 해외동포 자녀대상 애국·애향심 고취 △제주대학생 취업확대 추진 △21세기 인재 양성협력위원회 구성 △지역통합정보망 구성 및 협력방안 확대 △지방 공직자 대상 외국어와 정보화 분야 전문과정 위탁교육 실시 등 9개항에 합의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와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조총장, 신지사, 자문교수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자문교수단 위촉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정자문교수단(단장 한삼인 기획연구실장 법학과 교수)은 농수축산업·관광 등 11개 분야에 40여명이 우리 대학 교수로 구성돼 지역 또는 도정 현안 추진에 따른 자문, 협의, 연구 및 조사용역 등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우리 대학교는 정책개발 수립 또는 지역 및 도정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동으로 지역문제해결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김민영기자

전승규 동문 해양수산부 차관에

전문성 인정받아…해운항만 분야 실무경험 풍부

전승규(법 65년 졸)동문이 지난 8일 단행된 새정부의 차관(급) 인사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됐다.

전동문은 69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후 70년 교통부 제주지방 해운국 관리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인천지방 해운항만청 부두과장, 제주지방 해운항만청장, 동해·울산 지방 해운항만청장, 부산 지방 해운항만청장을 지내다가 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초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했으며 지난 해 1월 제1차관보로 승진한 우리 대학교 출신 중 최고위직 현직 공무원이다.

전동문은 지난해 5월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 등에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학발전기금도 출연했다.

한편 이번 차관(급) 인사는 부처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에다 신망도와 지역안배 등이 고려됐는데 전동문의 발탁은 국내 해운항만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일 처리 솜씨 등에서 최적격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주현기자

지면안내

제주 신화와 그리스 신화…4
투쟁과 평화란 모티브를 통해 동서 문화를 살펴 본다.

신입생들에게…6·7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힘차다.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 다시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 선배와 교수, 학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전교조 합법화를 바라보며…8
전교조 합법화와 남겨진 과제, 오승진변호사로부터 들어본다.

제주의 언어…9
제주도민의 정신이 살아있는 제주의 언어, 사라져가는 제주도의 언어는 무엇이 있는지 이번 호부터 연재되는 '제주의 언어'를 통해 알아 본다.

백록학술상…10·11

의과대학 개교

초대학장에 장가용 교수 임명

의과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의학과(정원 40명)와 간호학과(정원 20명) 2개 학과로 개교했다.

의과대(학장 장가용 의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초 의학과 임상의학 분야(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현재 지난 96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5백병상 규모를 갖춘 부속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도내 일간지에는 "교육부가 부속병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2백50병상 규모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편 장가용(의학과) 교수가 지난 2일자로 의과대 초대 학장에 임명됐다.(사진)

장학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서울 출생(35년) △서울대 의과대 졸(61년) △서울대 대학원(해부학) 석사(63년) △서울대 의학박사(73년) △서울대 전임강사(68년) △서울대 조교수(71년) △서울대 부교수(76년) △서울대 교수(81년) △우리대학 의과대 개설추진위원장(96년)

유정래·김영균기자

3개 연구소장 새로 임명

탐라문화 고창석·관광산업 고부언·체육과학 이창준 교수

교무처(처장 홍성락 물리학과 교수)는 지난 3월 1일자로 탐라문화연구소장에 고창석(사학과 사진 좌)교수, 관광산업연구소장에 고부언(경영학과 사진 중)교수, 체육과학연구소장에 이창준(체육학과 사진 우)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탐라문화연구소장, 관광산업연구소장 및 체육과학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고창석 탐라문화연구소장

△65년 경북대 사학과 졸업 △68년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84년 조교수 △86년 사학과장 △89년 부교수 △94년 교수승진 △95년 박물관장

▲고부언 관광산업연구소장

△74년 제주대 경영학과 졸업 △84년 전임강사 △86년 조교수 △90년 숭전대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및 부교수 △94년 경상대 교학과장 △95년 교수승진

▲이창준 체육과학연구소장

△74년 경희대 체육학과 졸업 △77년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82년 전임강사 △89년 부교수 △91년 체육학과장 △94년 교수 승진 △98년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유정래기자

취업정보·대학 규정 홈페이지에 개설

우리대학 홈페이지(주소 http://www.cheju.ac.kr)에 취업정보와 대학 현행 규정이 각각 지난 2월 9일과 3월 2일 개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취업정보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취업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개설하므로써 학내에서 LAN이 연결된 곳에서는 언제든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또 대학 현행 규정도 학내는 물론 학외에서까지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일반인들에 대한 대학홍보 효과까지 기대된다.

송경은기자

본사사령

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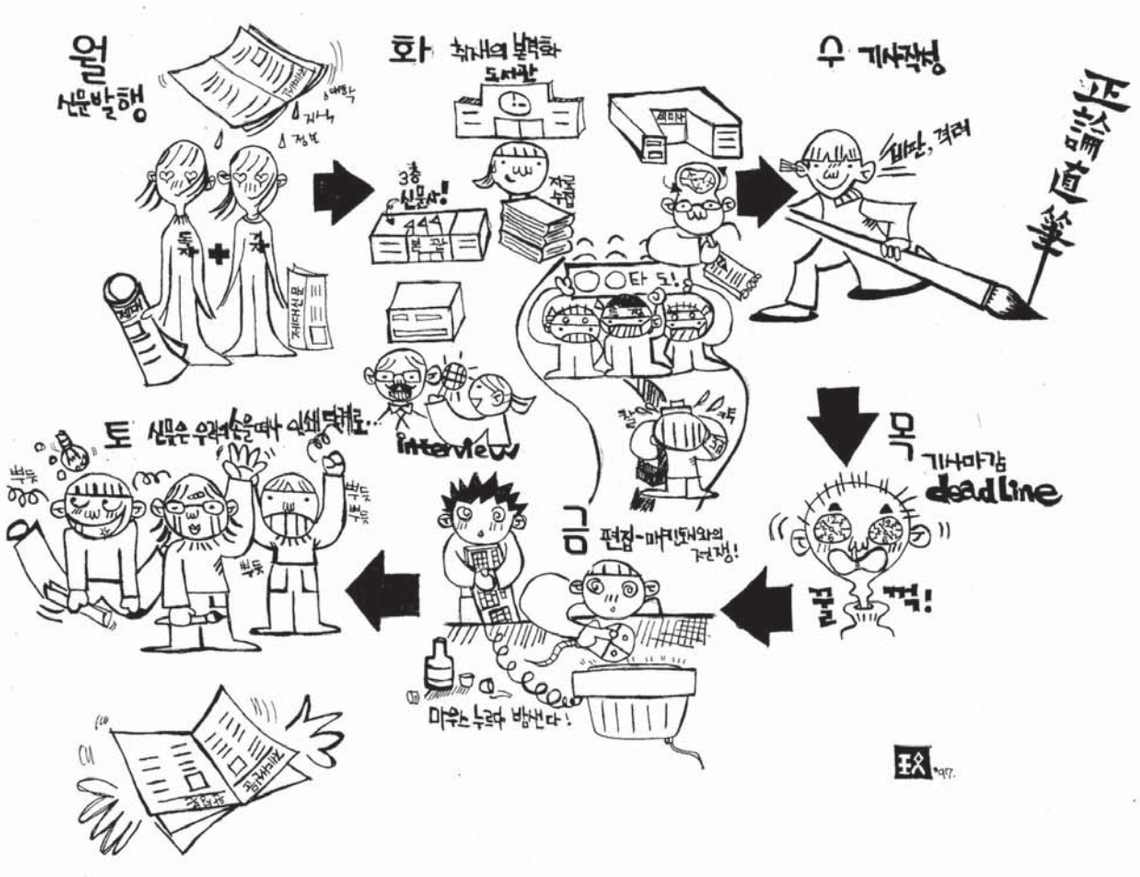
기 자 서주현(국어국문3)
편 집 국 장
고은미(일어일문3)
대 학 부 장
김민영(국어국문2) 문화부차장, 송은실(영어영문2) 대학부차장, 김종희(영어영문2) 학술부차장, 송경은(관광개발2) 사회부차장
수습기자 고성식, 김영균, 유정래
정기자

免

상임편집위원 고영철
이상 3월1일자

제대신문사

제대신문사 제46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생이 된다고 모두가 지성인이 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두드리는 자'만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홀로서기를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여기 제대신문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1. 대상 : 98학번
2. 분야 : 취재, 문화, 만평 00명
3. 제출서류 : 본사가 마련한 입사지원서 1통
4. 원서교부 및 접수 : 3월 18일까지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6. 전형일 및 장소 : 추후공고
7. 문의 : 제대신문사 ☎54-2278~9

'양심수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총학, 양심수 석방·IMF재협상 요구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이성은 관광경영 4)주최로 '미국의 경제 침탈 저지, 경제파탄주범 사법처리, 양심수 석방을 위한 총학생회 결의대회'가 지난 2월25일 오후 3시 50여명이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터에서 있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성은 학우는 "5월 학살주범인 전·노와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은 5·6공 세력은 사면되었지만 양심수들은 선별과 전제조건으로 석방하려 하고 있다"면서 경제파탄주범 김영삼의 사법처리와 양심수 석방, IMF재협상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이하 제총협 임시의장 이성은 제주대 총학생회장)주최 결의대회가 시청 후문 앞에서 제총협 소속 학우와 도내 대학생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10분부터 약 한시간가량 진행됐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학우들은 미국타도, 경제파탄주범 사법 처리,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관덕정, 중앙로 지하상가, 동문로터리, 시청 등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30분 가량 유인물을 배포했다. *고성식기자*

신입생 96.1% 등록

지난 해보다 등록률 높아

작년대비 0.6% 증가

98학년도 신입생 합격자에 대한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집정원 2천6백92명(모집정원 이월 1백12명 포함)중 2천5백88명이 등록(정원외 74명 제외)해 96.2%의 등록률을 보였다.

교무처(처장 홍성락 물리학과 교수)가 발표한 지난 2월28일 최종집계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원의 3.8%에 해당하는 총 1백4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등록률을 보면 △인문대 97.4% △법정대 85.8% △경상대 91.85% △사범대 99.3% △농과대 93.3% △해양대 98.9% △자연대 99.5% △공과대 100% △의과대 100%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신설학과의 경우 철학과, 언론홍보학과, 해양계측공학과, 간호학과는 100%의 등록률을 보였고 경영정보학과는 1명이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97학년도에는 2·3 지망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98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는 1지망에서 100% 선발해서 97학년도 보다 높은 등록률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입생 최종 등록률은 95.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은기자

총학, 생활복지기금 집행

선풍기·야외 농구대 등 설치

총학생회(회장 이성은 관광경영 4)는 생활복지기금(이하 생복기금) 1억여원을 들여 지난 방학중에 선풍기·이동식 무대·조명 및 시스템 앰프·야외 식수대·야외 농구대 등을 설치했다.

총학생회가 밝힌 생활복지기금 사용내용을 보면 △선풍기: 6천9백50만원 △이동식 무대: 8백10만원 △조명 및 시스템 앰프: 1천5백81만2천원 △야외 식수대: 8백30만원 △야외 농구대: 4백40만원 등이다.

반면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세미나실 냉난방시설은 설치 비용이 예상 가격보다 훨씬 비싸 보류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아있는 생활복지기금은 2천7백9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실기자

특별강좌·과외활동 활성화 시키기로

정서 함양 프로그램 마련

학생처(처장 오만원 체육학과 교수)는 인성 및 감성 개발, 리더십 함양, 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력 배양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함양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한다.

학생처의 정서함양 활동 내용은 ▲학생과외활동 ▲학생단체분과 ▲신입생 정서 함양 프로그램 ▲여학생 지도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특별강좌, 체육·문화·동아리·봉사·세미나 활동 활성화, 자랑스런 학생상 제정, 영화 감상회 개최 등이 전개된다.

고성식기자

해병대 소위 28명 임관

김지홍소위 대통령상 수상

98년도 해군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지난 3월 2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거행돼 우리대학 출신28명의 해병대 소위가 배출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우리대학 김지홍(식품영양)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해군참모총장상=문원욱(야간 회계) 소위 ▲해병대사령관상=현승규(환경공) 소위 ▲해군교육사령관상=함태원(수의)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김영균기자

아라·我羅

학교 사랑이 별건가?

O…제2 캠퍼스

개강 이맘때 쯤이면 캠퍼스 못지않게 활기를 띠는 야간 캠퍼스.

일명 '대학로'로 불리는 시청일대는 '헌내기'와 '새내기'들의 술파티로 술렁거리고 심지어 술취한 학생들의 비틀거리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를 본 어느 학부모 왈 "대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술 마시기 같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

새내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이는 아무래도 선배. 따라서 먹고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게 선배의 몫.

O…금요 극장 개관

우리 대학에도 매주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생긴다고.

학생처가 정서함양 활동 차원으로 오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공대 C동 세미나실에서 영화상영을 하기로 했고, 작품은 학생들이 선정한다는 것. 운동공간 부족과 마땅한 여가시간 이용에 고심하던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에게는 관심끌만한 소식.

금요일 오후 교정을 배회하는 아라인 여러분! 머리도 식힐 겸 공대 C동 세미나실로 발길을 돌려 영화 한편 보시죠.

O…지금 영문학과에서는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취업문이 설상가상으로 더욱 좁아지고 있는 때에 학생과 교수가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영어영문학과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지도교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이번 학기부터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취업계획서를 받아 그 계획서를 토대로 각 학생의 진로와 수강신청 등에 조언해주기로 했다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학생과 교수가 서로 뭉쳐 현실에 대처하겠다면 취업난 해결은 따논 당상.

O…학교사랑이 별건가?

보기만 해도 시원한 우리 대학교 캠퍼스의 넓은 잔디밭, 특히 망중한을 즐기기에 적격인 야외박물관은 속앓이 중.

이유는 야외박물관이 혈기 왕성한 학우들에게 지루한 시간을 떼우는 공놀이 공간으로 이용돼 오손도손 얘기하는 학우들의 원성의 대상은 물론이고 박물관 유물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봄 햇살받고 한껏 기지개 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공놀이 공간인 대운동장 등은 조금만 걸어가면 있으니 다른 학우에게 에티켓도 지키고 학교사랑하는 마음도 가졌으면 해서 한마디.

총동창회 장학금 전달

8백여만원 성적 우수자에 지급

총동창회 장학재단(이사장 김창진 법 54년 졸)은 총동창회와 대학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20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98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재학생 8명에게 장학금 8백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98학년도 제1학기 총동창회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 김지선(중어중문 4) △법정대= 하권호(법 4) △경상대= 고문종(야간 경영 3) △사범대= 김영아(컴퓨터교육 4) △농과대= 윤여숙(원예생명 3) △해양대= 김성수(환경공 3) △자연대= 양애경(생물 4) △공과대=(기계공 3)

한편, 총동창회 장학재단은 매년 각 단과대별로 성적우수자를 추천 받아 한 학기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김민영기자*

연구비 3천4백만원 지원 받아

박전홍·이경갑 교수 2개 연구과제 선정돼

농과대 박전홍(수의학과)·이경갑(수의학과)교수의 연구과제가 '98 핵심전문연구과제 공모'에서 선정돼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3천4백만원에 해당되는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연구지원담당관실(담당관 이재훈)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한국과학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연구과제 공모에 17개 연구과제를 신청했는데 그 중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지원금)

△박전홍 부교수=막소재를 이용한 설파메타진 면역분석법-기간 2년(2천4백만원) △이경갑 조교수=바베시아원충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비타민의 응용-기간 1년(1천만원)

김민영기자

돌하르방

新 인재지역차별제도

'국가 인재의 지역간 균등 등용 촉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른바 인재지역할당제라는 이 제도는 국가고시와 주요자격시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자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적인 발전의 원인을 인재의 서울 집중에서 찾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곳에 자금이 모이고 기업도 들어오는 것이 지역발전이론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반론은 이 제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려되는 점은 이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문제들이다.

그 중 하나가 대학 본연의 기능 상실이다.

대학의 현실을 보자. 많은 학생들이 '학과공부 따로 취직공부 따로'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각종 고시, 공무원 시험 등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대학은 이제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간판따기, 직업인 양성소라는 비판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재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수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각종 고시, 공무원 시험에 더더욱 매달리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대학은 일반 학생들을 교육시켜 사회에 필요한 지성인을 양성하는 곳이지 인재를 받아들여 고시나 합격시키는 곳이 아니다.

이 제도가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방대학들이 생존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추진 이전에 대학이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또다른 지역 차별이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비례가 극히 낮아(1.2%) 전체 1천 2백 25명 선발인원 중 14명밖에 할당되지 않는다.(97년 기준) 특히 선발인원이 적은 군법무관 시험과 외무고시의 경우 제주는 아예 할당이 없다. 또한 기술고시와 변리사 시험은 1명씩 할당돼 애초에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또다른 지역 차별은 제주 지역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수능고득점자는 모두 인재인가? 고시 합격자와 자격증 시험 합격자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일까? 단지 수능 고득점, 고시합격, 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이 인재의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대다수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닐까?

물론 소외된 지방, 지방대학의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자칫 섣부른 결정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여러면에서 신중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병춘전문기자*

본사 합동연수 실시

제대신문방송사(주간 한석지 사회교육과 부교수) 주최 '제대신문방송사 합동연수 및 초청 강연'이 제대신문, 교육방송, 영문 잡지 기자(국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27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합동연수는 △한삼인(기획연구실장 법학과) 교수의 "교육환경의 변화와 우리 대학교의 나아갈 방향" △이문교(전 제주문화방송 이사)씨의 "경제위기와 언론의 구조조정" △고영철 본사 상임편집위원의 "제대생의 濟大觀과 대학언론이 나아갈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각 사별로 △"대학언론의 역할과 사명-대학 언론이 중요시 다뤄야 할 주제-" △"98학년도 편집(성) 방침 구상(안)" △"제대신문방송사 98 캠페인 주제" 등과 한석지 본사 주간의 "대학의 현실과 대학언론의 활로"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영문잡지사는 2월 7·8일 양일간 한경면 고산에서, 제대신문사는 지난 1월23일부터 1월26일까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신문방송사에서, 교육방송국은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안덕면 사계에서, 각각 '동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각사의 자체 평가 및 98학년도 편집 방향 등을 토론했다. *서주현기자*

正道경영 · 초우량 LG

'98 LG 21세기 선발대 모집

1. 응모분야 ■ 자연과학분야 ■ 사회·문화분야 ■ 교육·예술분야 ■ 경제·기업분야
2. 탐방대상 ■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 IMF체제 극복을 위해 국내기업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해외 수출전략지역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 및 CIS, 중남미 등)
※ 탐방지역은 1개 대륙으로 한정함
3. 응모테마 ■ 응모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세계 초우량 수준의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
■ 95년부터 97년까지의 기존 〈LG 21세기 선발대〉 탐방테마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테마 (LG 홈페이지 참조:www.lg.co.kr/21c)
4. 응모자격 ■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탐방활동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5. 응모팀 구성 ■ 3명(동일학교 학생으로 구성, 전공 제한 없음)
6. 선발인원 ■ 90명(30팀×3명/1팀)
7. 탐방기간 ■ 2주일간(13박 14일) ※ 시기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8. 탐방팀 지원내역 ■ 항공료·숙박비 전액 ■ 소정의 연구활동비
9.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소정양식) ■ 탐방계획서 : A4용지 10매 이내 (• 탐방 분야·목적 • 탐방 일정·지역·대상 • 탐방 활동 계획)
■ 학(과)장 추천서 ■ 지도교수 탐방계획 지도 확인서 ■ 재학증명서
※ 참가지원서는 각 대학(교) 학생처(과) 및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에서 교부하며 L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복사 사용 가능
※ 1차심사 통과자 제출서류 : 예산내역서
10. 응모기간 ■ 1998년 4월 14일부터 1998년 4월 16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 접수처 ■ 방문접수 :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대강당 앞
■ 우편접수 : 121-7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LG마포빌딩(2층)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
12.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13. 선발결과 발표 ■ 1998년 5월 20일 LG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14. 탐방팀 의무사항 ■ 탐방보고서 제출(탐방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 포함 ■ 〈LG 21세기 선발대〉 행동규정 준수
15. 우수 탐방팀 시상 ■ 탐방보고서 심사를 통해 우수 탐방팀 선발, 시상
● 대상 : 1팀(부상 300만원) ● 우수상 : 분야별 1팀 총 4개팀(부상 각 200만원)
● 장려상 : 분야별 1팀 총 4개팀(부상 각 100만원 상당의 상품) ● 특별상 : 인터넷 중계 1팀 (부상 150만원 상당의 상품)
16. 기 타 ■ 인터넷 중계 ● 최종선발된 팀 중에서 선정하여 사전교육 및 인터넷 중계 실시
■ LG 홈페이지(www.lg.co.kr/21c)에서 기존 〈LG 21세기 선발대〉 자료등을 참조 할 수 있으며 참가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응모된 탐방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Tel:02-705-3050/2875, Fax:02-701-1507)
(LG 홈페이지 : www.lg.co.kr/21c)

LG

입학식사

진리 아니면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자세 견지해야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치며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높은 뜻을 펴고자 이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오로지 수능고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여 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진 만큼 보다 큰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인생설계를 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학창생활은 사회에 진출하여 역사의 주역이 될 준비를 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닦아나갈 대학 4년이란 과정에서 전반 2년은 20세기이며 후반 2년은 21세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최후의 학창생활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될 21세기는 어떠한 세기인가를 학문을 통하여 인식하며 체험을 통하여 익혀야 하는 시대적 운명을 가지고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사에서 미래의 희망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는 타 민족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아의 허구에 의해서 수난을 겪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허구에 의존하는 생의 가치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며, 항상 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아의 존립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숭상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에 따라 생존하는 자만이 생잔(生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자아의 행복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주게 됨으로써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진리라고 확신할 때까지 진리탐구에 고심하고 진리가 아니면 한발도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도 뿌리가 지탱되고 부평초가 되어 부유해도 이들은 모두 자연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진대, 어찌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생명의 진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는 곧 모든 생명체의 생명인 것이며, 진리를 외면한 생은 생(生)이 아니라 사(死)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생은 나의 욕구하는 바이요, 의도 또한 나의 욕구하는 바이나, 양자를 겸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리라" 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란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제주대학 신입생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노니,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든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어라'라는 이 한마디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일류대학 출신자들이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출세욕에만 눈이 어두워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오늘의 결과가 IMF시대라는 천벌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나 일류병이 진리를 외면하게 하므로써 IMF와 같은 수난시대를 영원히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반성하고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인류사회를 위하여 이 대학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인류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진리의 진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터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허구나 오류에 대해서는 명석한 두뇌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되, 진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진리를 숭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석학의 논조나 설파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허구나 오류는 있을 수 있으므로 교수나 선배의 논설에도 진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 경청하고 냉철한 사고력을 가지고 사고하며 날카로운 분석력과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의 지적 추구과정은 사고력의 증진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창의력의 증진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학은 여러분들의 21세기를 위한 진리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경주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산망을 통하여 세계의 석학들과 진리에 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세계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기성 조직체에의 취업은 물론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위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대학교의 많은 교수님들이 국내외의 학술회의와 학술지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그 명성이 자자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명문 대학이 되도록 할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참되고 깊은 진리를 터득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크나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서 진리의 화신이 됨으로써 영원한 생의 진가를 터득하고 자신의 행복과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3월 2일

총장 조문부

社說

신입생들에게

우리대학교는 금년에 2천6백여명의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였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고달프고 어려운 수험생으로서의 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꿈많고 즐거운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대학이라는 문턱으로 막 들어섰다. 혹자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도 하지만, 대학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이러한 소중한 유산들을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신입생 여러분은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과목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 놓은 귀한 유산들을 배우고 터득하게 될 것이다.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 유념해야 할 몇가지 점들을 제시해 보려 한다.

첫째, 오늘날 대학이 취직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안타깝지만, 대학이 학원과 다른 점은 대학에서만이 인류의 지적 유산을 배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신입생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여 다양한 교양과목의 수강과 고전에 대한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노력하기를 바란다. 교양이 풍부한 인간은 균형감각을 가진 '상식인'으로 성장하게 되며 문학, 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앞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겸비한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의 세계는 지구촌화와 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현실적으로 취직을 위해서도 영어 등 외국어의 습득과 컴퓨터의 구사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전공을 하든 외국어와 컴퓨터를 익히는 데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란다. 영어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므로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한다.

셋째, 대학은 인류의 지적 유산을 배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친구와의 관계, 교수님들이나 선배들과의 관계, 학과 구성원으로서의 자세 및 리더십 등을 익히는 곳이 대학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전공의 친구나 선후배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자신의 취미에 맞는 동아리를 하나 선택하여 활동하기를 권하고 싶다.

넷째, 의식을 갖고 고민하는 대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된 문제나 우리 민족의 분단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아파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대학생이 되기 바란다.

우리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부디 신입생들은 나의 발전이 곧 대학의 발전임을 명심하여 제주대학교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빈다.

濟大漫評

■ 신임교수 소개

10명 모집에 87명이 지원,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98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신규공채결과 조교수 2명(전임 1명), 전임강사 8명이 3월 1일자로 임용됐다.

또한 2명 모집에 11명이 지원,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97학년도 제2학기 전임교원 신규공채결과 자연대 소속 여의주 조교수(2월1일자)와 이봉희 부교수 1명(전임-3월1일자))가 임용됐다.

▲김일환(법학과) 전임강사

헌법 및 행정법 분야

△88년 성균관대 법학과 졸 △90년 성균관대 법학석사 △95년 만하임대(독일) 법학박사

▲조문수(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호텔경영 및 식음료 분야

△87년 경희대 경제학과 졸 △90년 경희대 관광경영학석사 △96년 한양대 문학박사

▲고영철(관광개발학과) 전임강사 공공홍보론 분야

△80년 제주대 관광학과 졸 △86년 중앙대 정치학석사(언론학 전공) △93년 중앙대 정치학박사(언론학 전공)

▲김태호(사회교육과) 전임강사

지형학 분야

△86년 경희대 지리학과 졸 △91년 동경도립대 지리학석사 △92년 텍사스주립대 전자계산학과 졸 △92년 텍사스주립대 전자계산석사 △97년 텍사스주립대 전산학박사

▲박철민(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87년 건국대 건축공학과 졸 △90년 건국대 건축공학석사 △97년 하노버대(독일) 공학박사

▲박상렬(해양토목공학과) 전임강사

구조공학 분야

△84년 한양대 토목공학과 졸 △93년 미시간대 토목공학석사 △97년 미시간대 토목공학박사

▲박경린(전산통계학과) 전임강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86년 중앙대 전자계산학과 졸 △96년 동경도립대 이학박사

▲고영상(의학과) 전임강사

미생물학 분야

△89년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 △91년 서울대 미생물학석사 △96년 서울대 이학박사

▲강현욱(의학과) 조교수

병리학 분야

△87년 순천향대 의학과 졸 △90년 순천향대 의학석사 △97년 순천향대 의학박사

▲배종면(의학과) 조교수

예방의학 분야

△87년 서울대 의학과 졸 △94년 서울대 의학석사 △서울대 의학박사 과정 수료 △ 94년 충북대 부교수

▲여의주(의예과) 조교수

생화학 분야

△82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 △84년 서울대 식품영양학석사 △92년 밴더빌트 생화학박사

▲이봉희(의예과) 부교수

해부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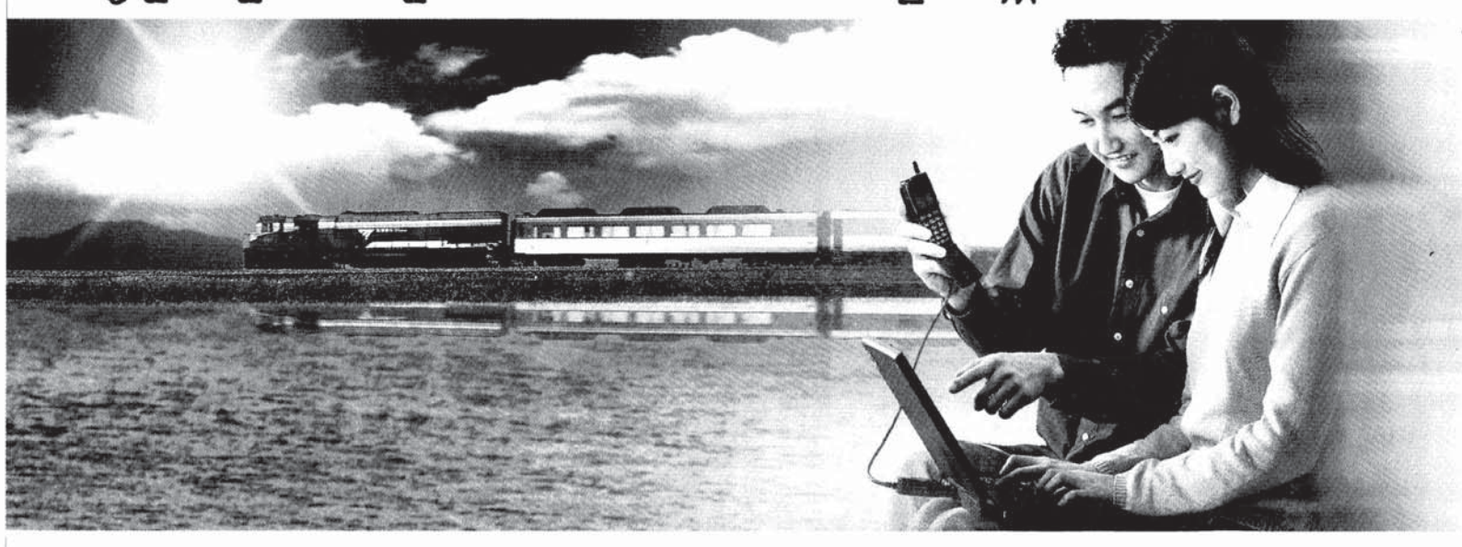
△82년 서울대 수의학과 졸 △85년 서울대 수의학석사 △94년 서울대 수의학박사 △97년 경상대 조교수

正道경영 · 초우량LG

사랑과 사업의 동반자 LG텔레콤

光PCS 빠르다, 뛰어나다 LG 019 PCS

"강촌 가는 기차 안에서 LG 019로 레포트를 보냈다"



오늘은 신입생 환영을 위한 우리학과 총MT의 날-

레포트 마감일과 겹쳐 MT냐, 학점이냐를 고민하던 나에게 반가운 소식 한가지-

LG 019가 세계최초로 PCS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LG 019를 노트북에 연결만 하면 PC통신은 물론 인터넷, FAX 송수신까지!

강촌가는 기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자료 찾고, 작성 후 교수님 연구실로 바로 E-mail송신-

아, 해방이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입생 군기 좀 잡아볼까?

우리가 믿는 것은 기술입니다 – LG 019 PCS

세계최초 CDMA기술 상용화

95년 4월 1일, PCS기술의 초석이 된 CDMA 통신장비(Starex-OMX) & PCS통신장비 (Starex-1800)를 상용화 하였습니다.

세계최초 광중계망 기술개발

100% 광케이블을 이용,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중계망(L'COTA)기술 개발- 통화영역,통화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갑니다.

세계최초 PCS데이터 서비스 개시

CDMA방식으로는 세계최초 - 98년 3월부터 LG019단말기와 PC를 연결하면 PC통신, 인터넷 검색, FAX 송수신이 가능해지는 데이터서비스(infoNET)가 펼쳐집니다.

LG 019 PCS

● 가입문의 : LG 019PCS 고객센터 Tel 080-019-7000, (02) 3416-7000
● PC통신 : GO LG019 ● 인터넷 : http://www.lgtel.co.kr

빌딩 숲에서 산간벽지까지 - 光PCS LG 019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

투쟁과 평화 모티브 통해 동서문화 이해

이글은 지난 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인문대와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주도민을 위한-98겨울 인문교양강좌'에서 양영수교수가 발표한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를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양 영 수
영어교육과 교수

신화는 민족적인 집단무의식의 표현이고 집단적인 사고방식의 원형이라고 한다. 제주 신화는 제주인들의 역사의 소산으로서 거기에는 제주인들 특유의 우주관과 생명관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 내지는 동양의 원형적인 사고방식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그리스신화가 서양적인 사고방식의 투쟁모티브를 구현하고 제주신화가 동양적인 평화모티브를 구현한다고 볼 때에,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를 비교하는 일은 곧 동서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라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나 심지어는 동식물의 생태에 있어서까지 서양적인 것은 투쟁관계를 지향하고 동양적인 것은 평화관계를 지향한다는 말을 흔히 듣고 있거니와, 두 문화권의 특징적인 차이를 신화에 나타난 창세와 치세 및 공존과 사랑의 기본원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창세 및 치세의 원리

신화에 나타난 창세의 원리는 신과 인간의 속성 및 그 관계를 규정짓는 출발점인데, 제주신화의 평화모티브와 그리스신화의 투쟁모티브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다. 그리스신화에서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에서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거쳐 벼락의 신 제우스에 이르기까지 아들신(神)이 부왕신(父王神)의 왕좌를 폭력으로 가로챔으로써 지배신이 되었음에 반하여, 제주신화의 지배신인 천지왕은 다른 어떤 신으로부터 왕좌를 뺏음이 없이 우주창조의 시발점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처음부터 자명하게 존재하는 천지왕의 위상은 인간의 것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지만, 하늘의 신 천지왕과 땅의 신 총맹부인 사이에서 탄생된 지상세계의 생명질서는 부모자식간의 인륜적인 종속관계를 바탕으로하며, 제주도 신들의 본업은 인간세계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이다. 반면에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그들의 권력이 다른 무엇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도전과 저항을 받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고, 그들간의 알력과 권력다툼은 그칠 줄을 모르며, 인간의 삶은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못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은 프로메테우스 하나 뿐이다.

제주신화의 평화모티브는, 천지왕이 제신(諸神)을 창조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제주신화의 직능별 제신은 원래는 인간의 신분에 있다가 신의 위치로 격상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배신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도덕적으로 선하고 능력면에서 출중한 인간을 선택하여 직능별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제주신화의 인도주의적 특징을 잘 말해준다. 그리스의 신들은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신일 경우에만 신의 신분으로 탄생되는데다 죽음을 면하는 등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존재의 위상보다 본질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과 다름이 없는 시기와 질투와 애증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나 신들 자신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다. 인간은 신의 권능을 탐하고 신은 인간의 욕망에 냉담하여 신과 인간의 사이는 적대적 관계이고, 인간의 숭배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신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그치지 않는다. 신의 가차없는 응징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신의 권능에 끊임없는 도전을 걸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신화에 나타난 서양역사의 발전원리를 곱씹게 만드는 부분이다. 제주신화에서처럼 천부지모(天父地母)적인 신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힘으로 자연법칙의 비밀, 즉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정신은 곧 자연세계를 자애로운 복을 베푸는 곳으로 보지 않고 냉정한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서양정신의 핵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질서를 관장하는 제신의 직능별 분담내용을 살펴볼 때에, 제주의 신들은 그 인도주의적인 성격답게 인간의 출생을 도와주는 삼승할망신과 죽음을 점지하는 시왕신 및 저승차사들, 그리고 농경신인 자청비신 등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인간을 잡아다가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차사들조차 인간의 치성에 감복하여 수명연장 소원을 들어주는 자애로운 신들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신화에서는 벼락의 신, 해와 달의 신, 바다의 신, 초목의 신 등 자연력을 관장하는 신들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인간사를 주재하는 신들로서도 아테나와 아레스 등 전쟁신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그 투쟁적인 면모를 확인시켜 준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제주신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가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지만, 이 여신의 사랑은 인도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성욕충족본능(性欲充足本能)을 말한다. 그리하여 신과 인간의 세계에 끊임없는 분규를 지피고 다닌다. 또한, 그리스신화에서는 저승세계와 이승세계 사이에 엄중한 구별이 지어져 있어서 시지푸스왕 등 죽음의 운명을 피하려는 인간의 반항은 모진 형벌을 받는다.

2. 공존과 사랑의 원리

자연세계와 인간성내에 존재하는 대립적인 세력들은 신화 속에서 대립적인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대립세력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주신화의 평화모티브와 그리스신화의 투쟁모티브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제주신화에서는 처첩(妻妾)간에도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례인데 반하여, 그리스신화에서는 혼외정사를 막아 혼인의 순결성을 수호하는 문제를 두고 무수한 반목과 살상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성과 광기(ecstasy)의 신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대립적인 두 가지 요소를 대표한다고 해석되는데, 제주신화에서 광기의 신에 해당되는 무조신(巫祖神)은 합리적 승조사상(崇祖思想)에서 숭배되는 조상신과 평화로운 공존관계임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에서는 이성의 신 아폴로와 광기의 신 디오니수스가 동일한 시간이나 공간에서 인간의 숭배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상호 배척적이다. 제주신화의 무조신 자체가 그리스신화의 엑스타시신과는 달리 일상적인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의 면에서 철저하지 못한 행적을 보여준다.

공존의 원리는, 권력의 획득과 분배 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지배신으로서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들신(神)에 의한 부신(父神)의 축출이고, 그 축출방법 또한 무자비한 폭력수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제주 신화에서 천지왕의 큰 아들 대별왕과 작은 아들 소별왕이 벌이는 인간세계 지배권 쟁탈은 수수께끼 맞추기나 꽃가꾸기 시합이라는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 제주도의 삼성신화에 나오는 삼을라(三乙那)의 활쏘기 장면 또한 그렇다. 땅에서 용출(湧出)한 삼신인(三神人)은 일본국에서 보낸 청의(靑衣)의 처녀삼인(處女三人)을 만난 후에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고 있는데 화살이 경쟁상대에게 향하도록 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질 땅을 향하도록 쏘는 것은 서로간에 충돌할 염려가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이다. 그리스신화의 투쟁모티브를 설명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성적인 사랑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스신화에서 여성적인 사랑의 원리를 구현하는 여신들은 여럿이 있다. 이성간의 성애(性愛)의 여신은 아프로디테이고, 아내로서의 사랑의 여신은 헤라이고, 독신녀들 사이의 순결한 사랑의 여신은 아르테미스이고, 이성간의 정신적인 사랑의 여신은 프시케이고, 모성애적 사랑의 여신은 데메테르이며,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작용하는 사랑의 여신은 페르세포네인데 이들 상이한 성격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신들 사이에서는 무수한 힘겨루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제주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랑의 사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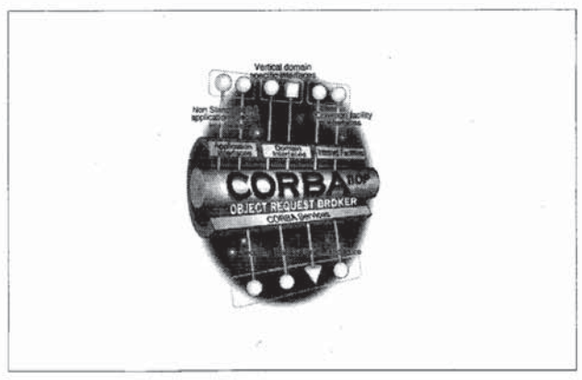
제주신화에서 여신이 보여주는 사랑다운 사랑의 사건은, 흔히 농경신으로 해석되는 자청비 이야기에 나온다.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구애행위와 관능적인 성애장면은 현대적인 자유연애주의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이다. 다만, 문도령의 아버지인 문선왕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신의 행위에서는 정의감, 의협심, 용맹성 같은 미덕들이 정면에 돋보인다는 점과 만난을 무릅쓰고 공덕을 쌓은 대가로 인간세계의 농경신으로 정좌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본능적인 사랑의 여신으로서의 이미지가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하여간에 자청비라는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본능적인 사랑과 도덕적 박애주의적인 사랑이 별다른 갈등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대립요소들간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제주신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야기

미래 인터넷 기술의 핵심 CORBA

송 왕 철

전산과학 기술이 개발된 이래로 모든 전산과학 기술들은 객체지향(object oriented) 방식의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컴퓨터의 계산기술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기술, 프로그래밍 기술 등의 모든 것들이 객체지향화 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 관련 잡지를 가끔씩 살펴보는 이들은 객체지향형 DB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C++이라는 언어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다른 고급형 컴퓨터 언어와는 달리 interpreter 방식인 베이직 언어에서 마저도 객체지향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에서 쓰이는 모든 자원들은 객체화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컴퓨터에 있는 자원들을 객체화 시켜놓았으면,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켰을 때 각 컴퓨터에 있는 객체들이 다른 컴퓨터에 있는 다른 객체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컴퓨터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객체의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요구가 잘 이뤄지도록 알선해 줄 브로커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일들을 처리할 때, 이에 대한 알선 중재 해주는 브로커를 통하면 쉽게 해결되듯이 말이다. 이러한 객체요구에 대한 브로커를 ORB(객체요구브로커, Object Request Broker)라고 하며, 네트워크에 산재해 있는 객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에 대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구조가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눈을 돌려보자.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진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섰을 때에도 인터넷은 대부분 전산관련 과학자나 공학자들 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마저도 인터넷에 대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Mosaic이라는 WWW(World Wide Web)서비스용 browser가 개발되면서부터 기존 인터넷 사용방법을 혁신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그 사용 명령어를 알아야만 했으나, Web browser가 개발되면서부터는 컴퓨터에 연결된 마우스를 이용해 알고 싶은 정보의 표식을 누르기만 하면 된 것이다. 1994년도에 이러한 Web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가장 유용한 서비스가 되었지만 이들은 단방향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구실만 하고 있었다. 1995년, CGI(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에서 정보의 이동이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Java 언어의 탄생이다. 여러 일간신문에서도 대서 특필하리 만치 대단한 일로 받아들여졌고, 컴퓨터 관련 잡지들은 그 이래로 자바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기사화하고 있는데, 1996년 미국 Sun사의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이 언어는 바야흐로 Web 기술을 객체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순서이겠는가? 바로 1997년 분산 객체기술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Java라는 언어는 객체지향적 언어이면서 Web이라는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이식성이 매우 우수한 언어이지만, Java를 통해 생성된 객체들이 네트워크에서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CORBA와 같은 분산객체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즉, CORBA를 통하면 네트워크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처리되도록 한다면, 그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대단히 유용한 경우, 그 컴퓨터는 병목현상에 빠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것을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객체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용량을 나눠 서비스한다면,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객체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서는 CORBA와 같은 기술이 네트워크 상에서의 객체의 요구를 상호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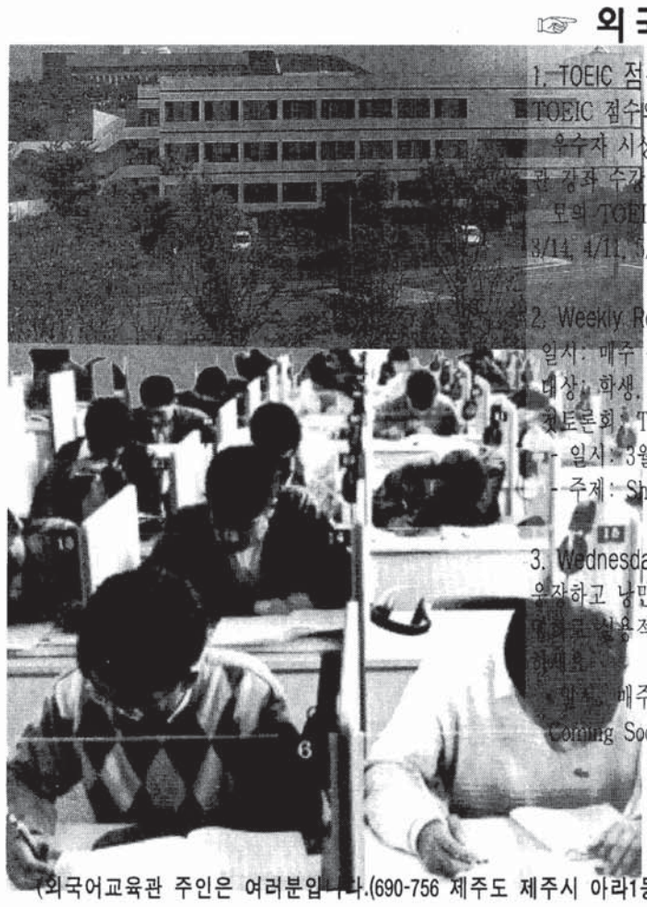
이제 인터넷 기술은 CORBA라는 분산객체 기술을 바탕으로 Object Web 서비스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는 Web browser를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려면 그에 따른 software가 여럿 필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친숙한 netscape와 같은 web browser하나만 있으면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인터넷 개발자들은 Web browser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분산 객체기술에 대해 대표적으로 CORBA를 얘기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기술만 있는 것도 아니며, Microsoft는 독자적으로 DCOM/ActiveX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다만 CORBA 기술이 대부분의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에서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CORBA가 미래 인터넷 기술의 핵심을 손꼽히고 있을 뿐, CORBA와 DCOM의 경쟁도 눈여겨 볼만하다 할 것이다.

〈정보공학과 전임강사〉

외국어교육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 외국어교육관이 달라졌습니다.



1. TOEIC 점수 관리제 도입
TOEIC 점수의 체계적 관리 및 개별 상담
우수자 시상: 푸짐한 상품, 상금, 외국어교육관 강좌 수강권
모의 TOEIC 응시일자:
3/14, 4/11, 5/30, 8/8, 9/12, 10/10, 12/5, 99/2/13

2. Weekly Roundtable (영어 토론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대상: 학생, 교수, 교직원 및 일반인 누구나
제1토론회: The 1st Session
- 일시: 3월 12일(목) 오후 4시-6시
- 주제: Should Private Tutoring Be Illegal?

3. Wednesday Cinema
웅장하고 낭만적이며 감동적인 영화의 서사시
영화로 실용적 표현과 회화도 배우고 문화도 접하세요.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Coming Soon: Lion King (3월 11일)

4. Let's Sing Along
은은한 음악소리, 가사를 통해 영어 표현법을 익히며 일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세요.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층 D실)
• 강사: Helen Reddin
3월의 첫 교실 (3월13일)
- Because You Loved Me
- My Heart Will Go On

5. English Clinic
영어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해결의 장
학기당 15,000원
일주일에 한 번 원어민 교사와의 개별상담
C.A.L.L. Lab 무료 이용

6. C.A.L.L. Lab
CD-Rom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멀티미디어실
• 학기당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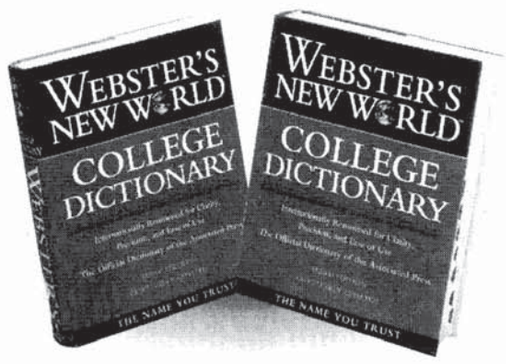
7. Language Societies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언어 동아리인 Language Societies는 여러분이 이끌어 가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외국어교육관 주인은 여러분입니다.(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54-2291~2, E-mail:flicnu@cheju.cheju.ac.kr, Home Page :http//fli.cheju.ac.kr)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Completely Updated!

美 기자 협회 (The Associated Press) 공식 사전
전세계 8천만 지성들이 애용하는 사전



· 150,000이 넘는 표제어와 700개 이상의 Illustration
· 최신 미식 영어(New Americanisms)에서 첨단 과학 용어까지
· 신속한 이해를 위한 적확(的確)하고 간결한 정의
· 최신 언어 사용을 위한 수천 개 용례
· 세련된 작문에 꼭 필요한 편집 및 문체 가이드

이 시대 지성을 위한 보급가 22,000원
20%할인 행사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한달간 전국 모든 서점에서!

Prentice Hall Korea Tel: (02)3142-5776/7 Fax: (02)3142-5778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 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는 독자 참여 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고방법

1. 대학원동 3층 제대신문 편집국
2. 통신이용: 천리안(ID:CTSMS), FAX 56-2204
3. 원고분량 : 3매 내외

이 외에도 우편을 이용하시거나 전화 (☎54-2278~9)제보도 가능합니다.

■ 대학 경영진단 평가 결과를 보고

여과없는 결과 적용은 대학 행정 파행 부추길 뿐

IMF 여파는 전 산업, 전 업종에 걸쳐 두루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 WTO출범,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강화 논리 등으로 대학은 과거의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위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제주대학교 경영진단평가는 앞으로 있을 대학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진단평가보고서는 제주대학교 장기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발전전략으로 9가지를, 그중 경영혁신을 통한 구조조정 및 구성원의 정예화와 행정혁신을 통한 대학행정체제의 효율화를 주요진단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진단팀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대학규모에 비해 조직과 인력의 방만성, 고비용 저효율 교육에 대한 개선의지 부족, 행정전산화 부진 등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학부제 도입, 유사학과 통폐합, 학생취업율 및 대학이미지 제고, 조직기구의 정비 및 행정전산화의 조기 정착, 직원정예화 차원에서 업무분담 및 인력의 재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혁신은 대학에서는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대학운영에 있어 과거 교육기관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운영방식을 도입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사무간소화, 학과통폐합을 통한 학사업무단일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학직원들은 교원과는 달리 정원동결과 감축의 대상, 경영합리화로 인해 과중되는 노동의 책임자일뿐 경영합리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정원감축(2천년까지 10.9%인 16만7천6백여명), 정년단축, 정년연장 폐지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교육부산하 공무원 9천1백97명(교육공무원제외)중 1천7백86명 감축(19.4%)이 예상된다.

그 어느 중앙부처의 공무원보다 감축인원이 많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직원(공무원)의 정원동결과 감원정책은 학부제, 다학기제, 대학정원자율화 등과 맞물리면서 대학직원의 노동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진단평가단이 제시한 제주대학교의 정원산정 내용을 보면 거시적 정원산정(직원1인당 학생수, 직원1인당 교원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과 미시적 정원산정(조직별·개인별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통해 최종적인 정원을 판단했다. 거시적 정원산정으로는 총직원 3백47명 중 79명의 여유인력이 나타났고, 미시적 산정으로 42명의 여유인력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판단정원은 3백5명으로 여유인력이 42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학의 구조조정이 직원감축이면 된다는 사고로 이어진다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대학직원의 감축으로 각종 행정업무를 조교가 대신하고, 지금까지 청사관리를 직원과 용역회사에서 해오던 것을 근로장학생이 대신하고 용역직마저도 경영합리화의 목적에 저해된다고 철폐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대학행정의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어떠한 여과과정 없이 경영혁신만을 내세워 경영진단결과를 적용한다면 대학의 행정은 더욱 왜곡되게 될 것이며 대학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구조로 바꿔가는 과정이 아니라 행정적 효율성에 집착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오경숙(전국 국립대 노동조합 제주대지부장)

아르바이트 통해 IMF영향 체험
아끼고 절약하는 씀씀이 지혜 갖자

요즈음 사람들 사이에 흔히 오르내리는 말이 'IMF 때문에'란 말일 것이다. 나 역시 겨울방학이 시작됐지만 IMF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 하던 터에 여름방학 때 일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며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내가 일했던 곳은 E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은 아니지만 할인슈퍼점이었다. 생필품을 파는 곳이기에 IMF 한파와는 직결되어 있었다. 이 곳에 다니며 나는 IMF의 타격을 피부로 느꼈다. 97년 12월말, 뉴스에서 새해부터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우리 매장에서도 사재기가 일어났다. 라면, 설탕, 밀가루 등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1인1구매로 양해를 구했지만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어 애를 먹었다. 라면류 식품들은 바닥이 났고 더 곤란한 일은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98년이 되자 한 두 물건이 들어왔으나 가격상승은 백원이상이었고 오르기 시작한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2주 내에 3번이나 올라 천원이상 가격차이를 냈다. 가계부를 쓰시는 아주머니들은 '슈퍼에 오기가 무섭다, 눈뜨기가 무섭게 가격이 오른다'며 푸념하셨다. 생필품이라 안 살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거냐며 나에게 묻는 분도 계셨는데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가 끝났을 때 받은 돈도 예전과 느낌이 달랐다.

매장에서 보낸 나의 겨울방학은 나에게 IMF의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씀씀이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경고를 한 듯 했다. 모두가 아끼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때에, 광고에서도 나오지만 십원으로 천원을 소비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고은아(관광개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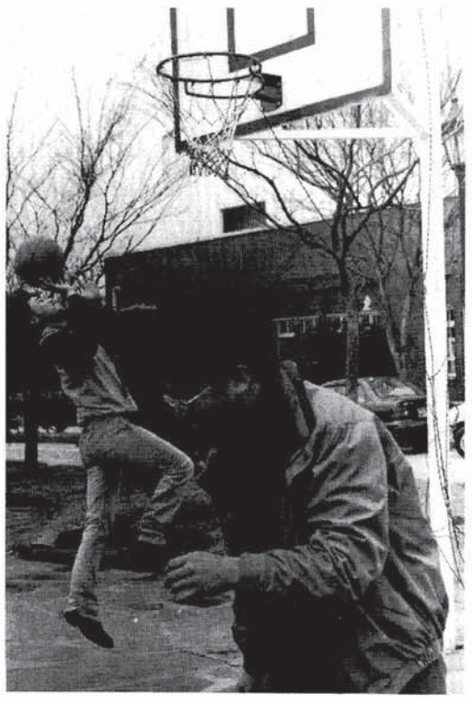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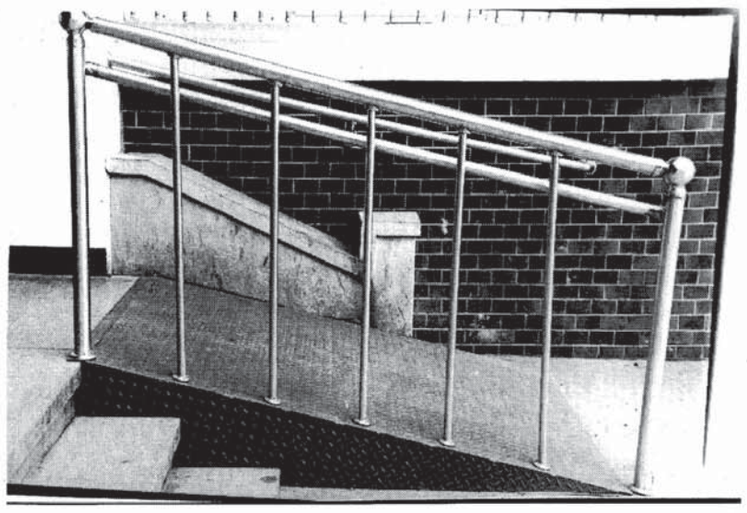
소위 정상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장애자를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가 많다. 마치 그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기라도 한듯이…….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 일지도 모른다.

취업의 병, 사회의 병, 차별의 병 그리고 인식의 병… 지금 주위를 한 번 살펴보라. 자기 자신은 너무나 큰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진은 방학 중 생활복지기금으로 설치된 농구대<위>와 대학당국이 교양동에 설치한 장애인 이용시설<아래>

글/사진 송은실기자





사람들

교내 주차 관리요원 문병선씨

주차난 해소에 도움 되는 듯해 보람

교내 차량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주·정차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 관리요원 문병선씨를 만나 학내 차량 소유자들의 주·정차 위반 정도와 앞으로 주·정차 관리계획을 들어보았다.

▲ 주차 위반 차량이 받는 징계는?

10회 위반시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게 되나 보통 13회까지는 봐주고 있다. 일단 바퀴 잠금 징계를 받으면 차량 주인은 총무과나 수위실에서 주의사항을 듣고 난 후 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켜보면 위반하는 차량이 계속 위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반수가 빈번한 차량은 학교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증을 회수하고 있다.

▲ 하루에 몇 개의 스티커가 소비되는가?

스티커는 오전, 오후로 나눠 붙이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0개의 스티커가 소비된다. 많이 소비되는 날은 200개가 소비되기도 한다. 스티커는 하나에 200원씩 사들이고 있어 하루 평균 2만원 이상이 낭비되는 셈이다. 더구나 요즘은 위반차량이 많아 근로학생까지 고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주·정차 질서만 잘 지킨다면 돈도 아낄 수 있다.

▲ 주차 단속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주차위반을 했으면서도 딱지를 붙인다는 이유로 위반 차량의 주인이 관리자에게 화를 내는 일이 종종 생긴다. 하지만 위반 차량 단속이 캠퍼스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해 보람을 느낀다.

▲ 정차시에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가?

정차도 역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간단한 용무라도 되도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주·정차 질서에 도움이 되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제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교수나 학생들이 종종 출입증을 받아도 부착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되도록 출입증을 갖고 다녔으면 한다. 또 주차만 잘해도 우리대학교를 사랑하는 길이므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또 도서관 옆 주차장과 학생 주차장도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

고성식기자

■세계화 시대의 사회·문화의식

신행철 외 4인 공저
176쪽값
5천5백원
집문당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는 가장 큰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데 세계화·국제화의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철학자,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예술학자 등에 의한 통괄적 연구로 현 우리의 문화와 의식, 세계문화와 세계정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있어야 한다. 모두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런 차원에서 단편적인 시각을 탈피해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세계화의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맺은 연구의 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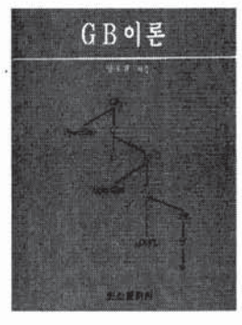
■新 컴퓨터 이해와 응용

김장형·최연성 공저
530쪽
값 1만6천원
문운당

요즘 퍼스널 컴퓨터는 전화기처럼 널리 보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도 이존의 메인 프레임 컴퓨터뿐만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설명되어 있다. 또 윈도우 95,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 쉬트, Netscape를 위주로 한 인터넷 등은 실습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한 학기 3학점 정도의 강의에 알맞도록 집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GB이론



양우진 저
135쪽
값 1만원
한신문화사

언어 연구의 기초는 통사론·의미론·음성학이며 외국어 교수법,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등 응용학문은 이를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주 관심분야인 언어구조에 관해 연구를 하는 통사론은 어학연구의 기초적 출발점이 된다.

GB이론은 의미론을 포함한 통사론 중심이론이며 다른 분야도 포괄한다. 저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학에서 GB이론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다. 이 책은 저자가 촘스키 교수에게 직접 강의를 듣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12년간 강의했던 노트를 설명적·해설적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구조

김장형·고석만 공저
337쪽
값 1만5천원
문운당

자료구조에 대한 지식은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지식 중의 하나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1장 자료구조의 개요와 표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 개념 소개, 2장 배열, 3장 스택과 큐, 4장 리스트, 5장 트리, 6장 그래프, 7장 정렬과 탐색, 8장 파일처리와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기술되어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문화·성격 등을 빨리 이해해야
'헌내기'들의 값진 경험 활용하길

소 인 섭

새내기란 신출내기 혹은 갓 태어났다는 뜻으로 쓰이며 특히 대학에서 1학년 신입생들을 칭하는 영어의 Freshman과 같은 뜻이다.

그리고 지리하고 암울했던 입시지옥을 벗어나 스스로 제 자신을 추스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며 당차게 세상에 도전해야 할 사명이 부여되어 전인적 인격형성의 길로 입문하는 첫 해의 대학생들이야말로 새내기인 것이다.

세상사 모든 일이 첫발을 잘 딛어야 만사형통 함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과연 어떤 발걸음이 잘 딛어진 것인가는 한참을 지나야 아는 수가 많으므로 우리 새내기들은 온갖 예지를 동원하여 희망찬,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생활이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는 많은 이들의 통계적 경험담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중한 체험이므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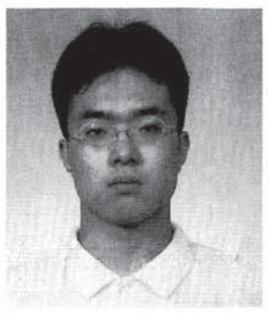
즉, 새내기들은 헌내기들과 가급적 많은 대화와 친교를 통하여 이미 지나버린 그들의 값진 경험을 시행착오 없도록 받아들여 앞으로 자신들의 대학생활에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오직 시험 잘 보기 위한 정보교환만이 아니라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대학생 으로서 의무를 미리 익히고 관념화 할 수 있어야만 지금껏 지나온 수동적 학습과정을 탈피한 진정한 능동적 자아완성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학도 대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작년도부터 실시된 '최소전공 졸업학점 인정제도'를 전국의 모든 대학이 따르고 있어 학교의 제도 혹은 교수-주도의 교육으로부터 학생스스로에게 수강의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여러 전공을 취득하게 하여 현시대가 요구하는 다기능인의 배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과 배려가 주어진다 한들 정작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의 참여 혹은 관심이 없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을 독파한다고 할 때 체계적인 학습태도를 가진 성공인들의 공통점은 우선 목차와 소제목부터 암기하여 전체에 대한 뼈대를 익힘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수평적 사고 습관으로 익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권의 책을 대하는데도 온갖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한다고들 하는데, 하물며 장래의 자신들 인생을 좌우하게 될 대학생활 4년에 대한 설계나 대책이 없다면 그 인생은 뻔할 것이다. 물론 처음 접하는 대학생활이라서 얼떨떨하겠으나 내 자신이 항상 주체가 되는 앞으로의 4년 기간을 보다 유용하고 보람있게 생활할 수 있는 첩경은 우선 대학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문화에 대하여 보다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있다.

98학번 새내기들이여!

IMF한파라 하여 모두가 움츠려 있는 지금에 제주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운치있고 목가적으로 잘 조성된 대학 캠퍼스를 내 집 삼아 우리 모두가 전화위복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매사 의미를 갖는 생활을 하도록 당부 드린다. (원예학과 교수)

다양한 경험 통해
내 방식대로 삶 개척할 터



김 명 관

나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 교정에 오게 되었다. 바로 지난해 나는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 입시 학원을 다녔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나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기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제부터의 대학 생활도 그러한 시련 뒤에 맞게 된 터라 참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재수를 하는 고통을 겪으며 공부했던 옛 추억을 되살리며 앞으로의 대학생활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 때나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참 아쉬워했던 것이 많았다. 좀 더 내게 여유가 있었으면, 또는 좀 더 폭넓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즉, 나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단지 나의 입장을 생각하며 모두 묻어버려야만 했다.

공부! 그것은 수험생에게 있어 학창시절을 암담하게 보내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 즉 언제 어디서나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모든 행동을 억제시키게 되는 것이다. 난 잠시라도 그러한 것들을 박차고 뛰쳐나오려 했으나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쓸쓸히 덮어버려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리라 본다. 대학생활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머리가 깨어진 모양이다. 앞으로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식대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 보려 한다. 즉 보다 멋있는 나만의 삶을 추구해 보겠다.

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행사 그리고 가장 해보고 싶었던 미팅! 또 컴퓨터 …….

언뜻 보기엔 이런 모든 것을 해보기엔 너무 벅차 보일는지 모르나 차근차근 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젊은 새내기이기 때문이다.

(의예 1)

현재는 미래의 거울
최선 다하면 내일은 희망이

김 행 범

영어영문학과에서 2학년이 되면 문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들을 배우게 된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오늘을 붙잡으라(Seize the Diem)" 라는 뜻의 라틴어 용어로서 호라티우스의 어드(Odes)에서 나왔는데, 특히 서정시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문학의 모티프의 명칭이 된다.

이런 말이 과연 신입생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과 학생이라면 이 말을 듣고 "낄낄"하고 웃을 지도 모를 일이지만, 나는 이 말을 달리 해석하고 또 신입생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우선 이 말은 한 마디로 말하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신입생들에게 '무조건 즐겨라!'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 '인(因)을 알려고 하면 과(果)를 보라' 고 하여 현재의 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며, '미래(果)를 알려고 하면 그 인(因)이 되는 현재를 보라' 고 하여 미래라는 과(果)의 인(因)은 현재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현재는 바로 인(因)이다. 그 '인(因)' 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바로 미래의 '과(果)' 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현재는 자신의 미래를 나타내고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 미래를 위해 현재를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모든 말은 한낱 농부에서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올랐던 지미 카터의 말로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이 되어도 아무 것도 얻을 것은 없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내일에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우려의 목소리도 보탠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지 않기를……. 왜냐고? 그건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니라..

(영어영문 4)

병무청공고 제98-1호

1998년도 징병검사실시 공고

1998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징병검사 대상자

o'79년 1월 1일 부터 '79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19세 대학재학생 포함)

o'7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참고사항

• 읍·면·동장이 징병검사 통지서와 함께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와"징병검서여비(우편대체증서)"를 보내드리며, 여비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급적 징병검사일 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징병검사통지서를 참고하시고,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후 징병검사시 제출바랍니다.

2. 병역처분기준

o학력별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되는 기준

학력 \ 신체등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검사 대 상
고 졸							
고 퇴 중 졸	보 충 역						

*5·6급 대상자는 징병관, 군의관, 읍·면·동장과 병역의무자 가족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3. 학력과 신체 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보충역대상	•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제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중 1인 • 1년이상 2년미만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제2국민역대상	• 중학중퇴이하자, 2년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4.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 안내

o징병검사 연기

•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전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o산업기능요원 편입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28개월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지원,경비 감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지원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제조생산 분야에 ·28개월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보충력 복무 희망원서(서식은 징병검사장에 비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희망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19세 입영 희망

• 금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군의 소요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습니다.

o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학:22세, 대학:24세, 대학원: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명부에 의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 대학 재학생으로 전역과 동시 복학을 위하여 학년말(12월에서 2월초) 또는 학기말(6월에서 8월초)에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서에 입영희망시기를 월별로 기재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당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시·구·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다음해에 입영계획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여.드립니다.

5.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등의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6.유의 사항

• 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 병역처분의 학력, 신체정도 등 법령상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컴퓨터에 의거 처분되는 것이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작용에 의하여 임의로 처리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간혹 외관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간질, 결핵, 정신질환 등 수치성질환과 수형, 저학력 등 신분상 사유로 면제되거나 불합격된 사람이 마치 청탁이나 정실에 의하여 면제된 양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만약 어떤 작용에 의하여 면제시킬 수 있는 양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를 즉시 아래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된 후 같은 지방병무(지)청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이미 발부된 징병검사 통지서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지방병무(지)청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전입신고시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통지서를 반납하고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검사일정(거주지 기준)		
제주	제 주 시	9.25 - 10.17
	서귀포시	9. 7 - 9. 11
	북제주군	9.12 - 9.18
	남제주군	9.21 - 9.24

병무상담이나 병무부조리 신고는 ☎	
서울 820-4221	부산 803-3920
대구 252-8011	수원 253-7080
광주 223-3912	대전 253-4901
춘천 54-7011	청주 273-3901
전주 83-9222	제주 52-3910
창원 66-3913	의정부 877-3912
강릉 43-3910	

병 무 청 장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98년 1학기가 시작됐다. 언제나 시작은 그렇듯 캠퍼스도 새로운 사람들과 모습들로 가득하다. 이 글에서는 학우들을 위해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학사행정제도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이 알아야 할 학칙, 병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입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우들의 학교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편집자주〉

▲시험 및 성적

△성적평가 방법 변경

이번 학기부터 모든 과목 학업성적 산출이 절대평가 방법에서 상대평가 방법으로 바뀐다. 이는 학생들이 담당교수가 점수를 얼마 만큼 주느냐 보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복수전공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비율도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9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A: 0~30%, B: 20~50%, C: 20~50%, D이하: 0~30%로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3월1일부터 시행)

△사회봉사과목 학점 인정

사회봉사과목 등 별도 지정 교과목들이 졸업학점으로 인정된다. 2학점까지 인정되는 사회봉사 과목은 급제(P) 또는 낙제(F)로 성적을 평가하되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부정 행위자 등의 처리

지난 해까지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해당과목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0점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너그러워지면서도 훨씬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시험감독자는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수험자에게 퇴장명령하게 된다. 또 수험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호응 또는 방조할 경우에는 그 시간 교과목의 성적이 F로 처리된다.

△휴학한 자의 성적 처리

시험기간 2~3일 전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변경된 학칙이다. 재학생이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휴학할 경우 수강하던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군 입영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기말 시험에 응할 수 없을 때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선시험에 응할 수 있고, 이때 취득한 학점은 인정된다.

△징계 받은 자의 성적 처리

올해 새롭게 제정된 학칙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처리 문제는 소속대학 교수회의에서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징계로 인하여 수업주수 3분의 1이상의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대학 이미지 통합(UI)

우리 대학도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로고, 서체, 캐릭터 등 각종 시각 표현물 통일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4월경에 발표되는 시안이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면 이를 이용한 문구류 등 기획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4월 이후에는 건물 사인, 교통표지판, 휴식공간과 조형물, 산책로 등 환경 이미지 및 캠퍼스 공원화 계획도 구체화 된다.

▲병역

요즘 경제위기다 해서 군입대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병역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당연한 의무이지만 입대 시기를 두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여서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군 입대에 앞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의로 구성된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 검사 결과와 학력, 건강정도 등 자질을 종합해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 등의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병역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ROTC, 졸업 후 학사장교 등으로 의무를 마칠 수 있다.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재학생과 전문대 이상의 학교 재학 중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만 19세에 전원 징병검사를 받은 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된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입영 자동연기가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학 중 군 입영을 희망할 경우는 재학생입영원서를 지방병무청이나 시·구·읍·면·동에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입영할 수 있다.

▲건물 신축

현재 총 81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자연과학대학 B동, 제2 도서관, 전자계산소, 청소년 수련장(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등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 8월 완공예정인 자연과학대학 B동에는 수학과, 전산통계학과, 가정관리학과, 의류학과 등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자연대의 공간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 도서관은 열람석 확보 및 포화상태에 다다른 중앙도서관의 장서 분산 효과를 얻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짓고 있다. 99년 제2 도서관이 완공되면 약 10만여권 내외의 장서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열람석 확보율도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전자계산소는 인터넷실 및 각종 자료보관실의 규모를 늘리고, 컴퓨터를 모두 586으로 교체하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수련장은 서귀포시 보목동 옛 해양연구소 부지에 건축되고 있다. 세미나실, 숙박실, 회의실, 세탁 및 샤워실, 도서실, 린넨실 등의 기본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주현기자

입학축사

아랏벌에서 청운의 꿈 펼치길

오늘 희망찬 꿈을 안고 입학하는 2,664명의 입학생 동문 여러분!

제주대학교 졸업생 3만 총동문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4년동안 전문교육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우리라 믿습니다.

제주대학은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1952년도에 법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및 수의축산학과에 불과 122명의 입학생으로 개교된 이래 금년까지 무려 58개 학과에 3만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한 종합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은 국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입학생 동문 여러분!

지금의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IMF경제난국의 시대로 온 국민이 경제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기구의 축소, 공무원의 감원,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는 무려 2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상초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입학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실력을 쌓지 않고는 졸업 후의 취업난에 직면하게 되는 고통을 피할 수 없으리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지금 훌륭하신 조문부 총장님의 열정으로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 등의 확충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우수한 국립종합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입학생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성공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주듯 새정부의 시책을 따라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간다면 1년 반 후에는 반드시 경제회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재학하는 동안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여 자격증의 획득, 기술의 연마에 전념하여 4년 뒤 취업의 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청운의 꿈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후회없는 학창생활이 되어주시길 선배로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입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며 이곳 아라벌에서 여러분의 청운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3. 2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 김창진

공강시간 알차게 보내는 법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러한 물음들은 공강시간이면 생각해 보는 것들이다. 특히 새내기는 더욱 이러한 물음들을 자주 던지게 된다. 이것은 대학의 강의방식이 초·중·고등학교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표에서 강의시간 못지 않게 빈 칸을 차지하고 있는 공강시간이 목적없이 쓰여지기 일쑤다. 따라서 이제는 새내기 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이 공강시간을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유익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중앙 도서관 2, 3층 개가자료실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찾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자. 개가 자료실 개가식 서가에서 도서를 직접 찾거나 또는 도서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자료를 찾아 보고, 대출도 해보면 좋겠다. 폐가자료인 경우는 1층 도서목록실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도서 대출 신청서에 기재하여 2층 개가자료실 대출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그 외에 희망 도서 구입신청과 타도서관 이용, 문헌 복사서비스 등의 도서이용서비스 제도도 적절히 이용하면 두배 세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4시간 개방운영되는 학내망(LAN)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보는 것이다. 학내에서는 본관 3층 전자계산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 Telnet, 전자우편, FTP, NETscape 등을 이용하면 종합정보 검색 및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셋째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수준을 자랑하는 외국어 교육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Sound Library실이 있는데 외국방송 뿐만 아니라 Caption(외국어 자막) 기능까지 마련돼 있어서 학우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우리학교에 등록된 동아리들은 문화, 학술, 종교, 체육 등 각 분야별로 특성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동아리의 일원이 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외에도 항상 신문이나 책을 준비하여 틈틈이 읽어 보거나 학내에서 열리는 특강, 초청강연, 문화행사,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권장해 본다. 중요한 것은 공강시간을 충실히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문화가 자칫 오락문화처럼 비하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기만의 지식과 견문을 넓혀간다면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유정래기자

98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3월31일 휴·복학기간 만료
▲4월7일 1학기 수업주수 3/1선
▲4월20일~25일 중간고사
▲5월14일 1학기 수업주수 3/2선
▲5월25일~6월5일 98년 2학기 수강신청
▲5월27일 46주년 개교기념일
▲6월15일~20일 기말고사

'98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안내

'98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허가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디다

◉ 다 음 ◉

가. 휴학허가기간 : 1998. 3. 2 - 1998. 3. 31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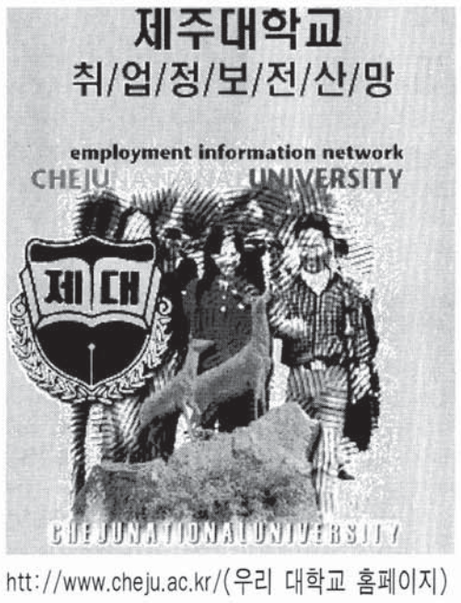
나. 복학허가기간 : 1998. 3. 2 - 1998. 3. 31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참고사항
• 휴학기간중에 군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사유란에 가사(입영희망)으로 표기하여 휴학원을 제출할 것.

제주대학교총장

취업정보 홈페이지 개설

우리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는 취업전문기관인 (주)리크루트사와 협력하여 취업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아래 웹 사이트(Web Site)와 같이 개설 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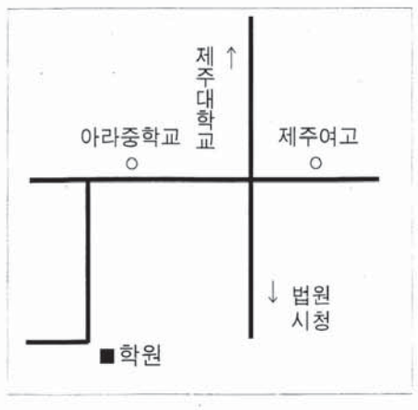


• htt://www.cheju.ac.kr/(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htt://192.203.138.12:300/(리크루트 정보 server)

제주대학교 학생처

운전

한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 55-9900, 56-7755

제주시 아라 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Mail Server 이용계정 (재)신청 안내

1998학년도 제1학기 Mail Server(cheju1) 이용계정 (재)신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재)신청대상 : 대학원생, 학부생, 객원교수, 시간강사
기존에 등록된 User도 기간내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삭됨

나. (재)신청기간 : 1993. 3. 2 ~3. 31(30일간)

다. (재)신청장소 : 전자계산소 시스템연구부(☎54-2265)

라. (재)신청방법
- 등록신청서(전산소 비치)를 이용하여 (재)신청
-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 신분증명서
○ 대학(원)생 : 학생증
○ 객원교수, 시간강사 : 객원교수, 시간강사임을 확인할 수 자료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스템 연구부(☎54-2265)로 문의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

■전교조 합법화를 바라보며

교육현장의 민주화 위한 첫걸음

선의의 경쟁·협조로 교총과 교육발전 도모해야

1998년 2월 6일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위원회의 타협결과 전교조가 그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1986년 5월 교육민주화 선언이 나온지 3년 후인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전교조가 결성되었으니 10여년만의 결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정리해고 수용 등 노동계가 상당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전교조 합법화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다소 불만이다. 하지만 어차피 노동계자 받아들인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등은 당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상황논리 하에서 강요된 측면이 있었으므로 그 반대급부로 전교조 합법화를 얻어냈다고 하여 그 의미나 성과를 적게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전교조 결성 직후에 문교부에 의하여 무려 1천5백27명에 이르는 선생님들이 파면, 해임되면서도 교육민주화에 대한 신념 하나만으로 버텨온 결과다. 이들이 1994년 3월에 복직되기까지는 무려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동안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험한 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이들 선생님들은 신문배달,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생님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제서야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화 운동이었다면, 본격적인 운동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인정여부와 범위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교육단체와 학원운영자 등은 노사정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교조 합법화 저지운동을 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스승은 결코 노동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스승의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말은 교사가 교육현장의 주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전도된 논리에 불과하다. 정부가 1996년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중에서 회원국 가운데에 교원노조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은 들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교원의 노조활동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노동자가 아닌 "스승"에 의하여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왔다면 교육현장의 숱한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무슨 이유로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과외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 되고, 입시경쟁에서 탈락하여 자살하거나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많을까. 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똑 같은 공부를 해야 하고, 정규교육에서 낙오되면 사회에서도 패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학부모들은 언제가 되야 "촌지"를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나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전교조가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교과목의 수를 줄이며, 다양한 특별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허용, 지원하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학교활동의 결과가 대학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하며, 의무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며,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단체행동권 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여론이 남아있어 교사를 다른 노동자와는 다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본질적으로 보면 교사를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교조로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신중한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총과의 관계에서도 선의의 경쟁과 협조를 통하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믿는데, 이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노동계를 이끌어온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옷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시대는 우리들의 시대와는 다르다. 지금의 교육체계나 환경으로는 21세기를 맞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는 앞으로의 전교조의 활동에서 볼 것이다.

오승진(변호사)

시론

IMF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어려움은 시작에 불과…의식·가정혁명의 기회로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1842~1924)이란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었다.

마샬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의 창설자인 동시에 경제학파의 하나인 신고전학파의 창시자로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샬이 작고한지 70여년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도들의 마음속 깊숙히 그의 존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그가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샬은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들이 운집해 살고 있었던 런던의 빈민굴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들의 처참한 생활을 직접 관찰하는 등 경제현실의 실상을 몸으로 파악하며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사색하고 일생을 고민한 사람이다. 즉, 마샬은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투한 경제철학가였다.

그는 또한 당시의 런던 빈민굴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참담한 생활의 실상을 보고 하층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주어야겠다는 책임감과 윤리적·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가 1885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 연설중에서 그는 "강한 인간의 위대한 어머니인 케임브리지가 세계로 배출하는 사람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cool head but warm heart)을 갖고서 주위의 사회적 고뇌와 싸우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 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염원이며 또한 최고의 노력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여기에서 경제학자들에게 호소하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한다.

우리 민족은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진학률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몇째 안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보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낙후되어 있으며 이번에 국가경제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을 보면 국민의식수준이 대단히 낮은 소행의 결과라고 집약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샬이 언급하고 있듯이 '냉철한 머리' 즉 교육 수준이 높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은데,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따뜻한 마음'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심, 불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빈곤하고 괴로워하는 소외계층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두뇌가 좋고 명석한 사람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서 정경유착, 기업가들의 천민적인 경영, 금융업자들의 비합리적인 경영, 집단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무질서, 사회요소요소에 부정부패의 만연, 이런 요소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제 신용도를 낮추게 되는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인간의 이기적 행동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슴에 안은 채 '냉철한 두뇌'만 가지고서는 정치·경제·사회발전 등의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나라를 선도해 가는 중추적인 지도자급 인사들부터 솔선하여 희생적인 정신을 갖고 그늘진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해나갈 때에야 비로서 상호신뢰가 증진되고 국제 신용도가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도 증대되고 바닥을 헤매고 있는 한국 경제도 재도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국민이 빠져있는 수렁과 고통이 깊고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기소침 되어있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면 고물가, 고금리, 고세율, 임금삭감, 정리해고,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과 연쇄부도, 대량실업 등 어느 하나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진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정부는 IMF의 강도높은 요청에 의해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틀을 벗기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분야에 새로운 틀을 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보다 진솔하게 서민의 생활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하며 진정으로 고통을 함께하는 공생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오늘날의 이 어려움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생명력이 대단히 강하고 어떠한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6·25'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산업시설의 80%이상이 파괴되는 잿더미속을 딛고 일어섰으며, 국내외 경제여건이 대단히 열악했던 1960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의 생활을 엄습해와도 미동도 하지 않고 반드시 타고 넘을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정신무장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이 기회를 진정한 의식혁명·가정혁명의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우리는 언제나 근검·절약정신을 몸에 베게 하고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또한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남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으며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 간다면 우리의 앞날에는 어떠한 장애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들의 가는 길에 머지 않아 서광이 비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원철(경제학과 교수)

無論有說無論有說無論有說無論有說

무 론 유 설

無論有說無論有說無論有說無論有說

법을 신뢰하고 지키는 대학생이길

김 상 찬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으로 범칙금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이 시험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도 미안해 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기 보다는 자기자신만 운이 나빠서 이른바 '시범케이스로 걸려 처벌 받는다'는 억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대다수의 학생이 시험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지도 모른다.

밤 늦은 시각이나 인적이 드문 큰 길의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고 있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쩐지 자신이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강도죄나 살인죄 같은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수없어 잡혔다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작금의 사태이고 보면 우리의 법의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일까? 어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려 하거나 법을 어기고도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 현상은 우리의 법문화의 형성과정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는 일제식민통치시대에 근대법을 일본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친일파요 매국노의 행위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이야 말로 애국자요 독립투사의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이 된 후에도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의 부패, 제2공화국 장면정부의 무능, 제3·4공화국 박정희정부와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의 군사독재,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와 문민정부라 일컫는 김영삼정부의 정경유착, 경제실정, 친인척 비리 등 굴절된 정치역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반감과 아울러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여 법을 잘 지키기 보다는 법을 어기거나 피해나가려 하며, 법을 어기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그러나 IMF시대의 국가위기 속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보면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으로 대변되는 법조계의 비리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어느 만큼 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적어도 최고학부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우리들만큼은 지성인답게 법을 신뢰하고 지키는 그런 대학생이 되었으면 한다.

부정행위로 A학점을 받느니 차라리 정당한 실력으로 C학점을 받는 당당함을, 무단횡단하는 조급함 보다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로움을,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대로변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멀리 돌아가는 지혜를 가지는 그러한 학생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으면 한다.

〈법학과 전임강사〉

원고를 모읍니다

제대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 논단, 시론, 만평 등 참여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투고방법

1.대학원동 3층 제대신문 편집국 2.통신이용 : 천리안(ID:CTSMS), FAX56-2204

3.원고분량 : 독자의 소리 : 원고지 3-4매, 시론 : 원고지 10매 내외, 논단:원고지 20매 내외

이외에도 우편을 이용하시거나 전화(☎54-2278·9) 제보도 가능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 걸음만더…· 학교가 달라집니다.

금 요일은 분리수거

●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 요일은 깨끗한 학내 환경조성 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우리대학 작년 한해동안의 청소비용은 8억원 이었습니다.
-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또 건물의 증축으로 청소 범위가 늘어 나며 물가의 상승을 감안하면 금년도 청소비용은 20% 이상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사무국에서는 금년 3월부터 그간 외부용역에 의하여 청소하던 부분 [illegible]면 학내인력만으로 청소하도록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근로 학생도 [illegible] 보조토록 하여 적어도 전년 비 1억5천 만원의 경비를 절약코자 합니다.
- 오늘과 같이 교육 재정 확보가 어렵고 특히 타 대학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 여건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우리대학으로서는 이와 같이 많은 비용을 청소에 투입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가 버리는 휴지나 담배꽁초 그리고 각종 매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illegible]정을 크게 잠식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제주대인 여러분 !
-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교육 부실로 연결됩니다

우리대학 작년 한해동안의 청소 비용은 8억여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1억5천만원이 절약되고 절약된 1억 5천만원은 취업 교육에 쓰여 집니다.

'98. 신입생을 위한 컴퓨터 특강 안내

1. 교육강좌 및 일시

강좌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인원	비고
WINDOWS 95	3.16~4.10(20일간) 17:00~18:00(1일 1시간)	전자계산소 제3실습실	선착순 36	토·일요일 제 외
W/P(혼글 97)		전자계산소 제2실습실	선착순 36	
INTERNET		전자계산소 인터넷실	선착순 26	

☞ 교육강좌는 및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3. 참여방법
① 교육대상 : 신입생(인원 미달시 재학생 포함)
② 교육장소 : 전자계산소 실습실 및 인터넷실(본관 3층)
③ 수강료 : 강좌당 30,000원
④ 수강신청기간 : '98. 3. 9(월)~3.14(토)
⑤ 수강신청장소 : 전자계산소 교육연구부(☎54-2263)

4. 기타사항
① 수강신청 접수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인원이 강좌당 13명미만인 강좌는 폐강함.
③ 납부한 수강료는 일체 반환 안됨(단, 폐강된 강좌의 수강료는 환불함)
④ 강좌별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디스켓은 별도 구입한다(교재는 추후 선정)
⑤ 자세한 내용은 ☎54-2263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 자 계 산 소 소 장

개가자료실 운영시간 연장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98학년도 제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을 원활히 하고 공부하는 학풍을 조성하기 위해 방학기간 동안 중단하였던 개가자료실 이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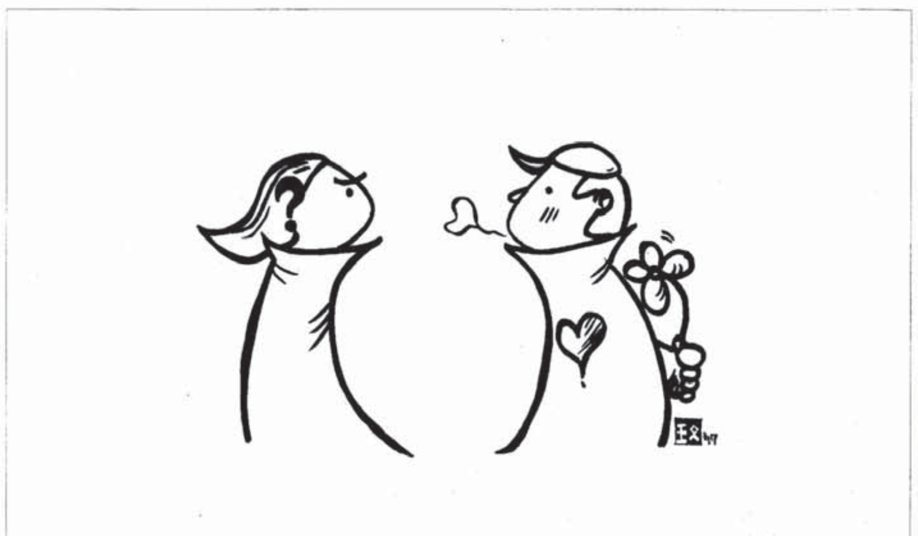
1. 실시일 : '98년 3월 2일(월)부터(방학기간 제외)
2. 연장운영시간
• 평 일 : 18:00 ~ 20:00(2시간)
• 토요일 : 13:00 ~ 15:00(2시간)
※동절기는 평 일 17:00~21:00
토요일 13:00~15:00
3.연장부서 : 2층 개가자료실
(국내서, 서양서 단행본실)
※. 3층 자료실은 제외)

중 앙 도 서 관 장

■제주의 언어 ①

귀 테우다 눈치로 알아차릴 정도로만 요점을 귀띔함
나차다 나이를 어지간히 많이 먹음

강영봉 교수의 '제주의 언어'가 이번호부터 연재됩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언어에 대해 많은 관심바랍니다.
〈편집자주〉



귀 테우다

이 「귀테우다」는 〈눈치로 알아차릴 정도로만 요점을 알려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어휘다. 표준어 〈귀뜀하다〉에 해당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속마음을 다 터놓고 심사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가끔 있다. 마음을 버선짝 같이 뒤집어 보일 경우는 그야말로 친밀감이 있고 온통 다 드러내드라도 별문제가 없을 때이다. 모든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으니 앞뒤를 잰다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따질 필요 또한 군더더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불편한 관계에 있어 서머서머하다면 콩이니 팥이니 하며 다 알릴 필요성은 없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심사만을 전하면 된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나 글쎄 정도로만 전하며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다. 앞은 이러고 뒤는 저렇고 하며 미주알고주알 다 전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혹 오해를 사기라도 하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이다.

이런 경우 대개는 변죽만 울려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치채게만 하면 그만이다. 정말이지 나야 답답할 게 없지만 상대방은 그렇지가 않다. 벙어리 냉가슴으로 속시원하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길 바라지만 이쪽에서는 「귀테우는」것으로 끝내서 더 안타까운 일이다. 「귀테왐시매 이제랑 자네가 알앙허주」이상 진전은 없다. 대충만 이야기하니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본심이 무엇인지 떠보려 하지만 화법에 문제가 있는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인지 썩 내키는 일도 아니어서 도중에 그만 두고 만다. 나중에 가서는 쓸데없는 오해만 생겨 뒷맛이 씁쓸할 뿐이다. 입맛을 다셔도 가시만 돋을 뿐이고, 고민을 해보지만 정답과 해법이 보이지도 않는다.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귀테우지」않았으면 입맛을 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허튼 상념에 잠기지도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속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결국 「귀테우다」는 변죽만 울려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치채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알듯 말듯 하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차다

이 「나차다」는 〈나이를 어지간히 많이 먹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어휘다. 표준어로 하면 〈나이먹다〉나 〈나이차다〉에 해당될 것이나, 형태에 초점을 둔다면 〈나이차다〉에 맞먹는다. 그러니 그 뜻도 〈적령기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집안에 「나찬」처녀를 두고 있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걱정거리다. 다 키웠다는 안도의 마음도 있는 한편 어떤 신랑감을 골라 시집보낼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게 마련이다. 시집가는 것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속으로는 애인이 있으니까, 부모 곁을 떠나기 싫어서 등등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머문다.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걱정거리로 떠오른다. 혼자 살기로 작정한 걸까, 묻어둔 연인이 있는데 반대할까봐 그런가, 아예 애인이 없는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시집가기를 은근히 떠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반응은 점점 줄어든다. 「추구리고(추기고)」또 「추구리고」하면서 선보기를 권하지만 막무가내다. 권하기도 한두번이지 지칠대로 지쳐 그만 포기를 한다. 사실 포기를 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일에 선이 없고, 친구의 잔칫집에 가서는 풀이 더 죽는다. 술 마실 줄 안다면 술로 위안을 삼는다. 취해 돌아와 눕지만 이내 잠들지 못한다. 한숨과 함께 돌아눕기만을 거듭한다. 딸 방으로 건너가 이야기하려 하지만 딸의 눈치가 행동을 가로막는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홀가분해진다. 막내딸이라고 한다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좋다는 심사다. 그래서 쉽게 결혼시키고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촘말허지 마라, 나찬 똘 이서봐」를 되뇌이며 술잔에 손이 간다. 〈참 말하지 마라, 나이찬 딸 있고 보면〉 하는 뜻으로, 그 동안의 마음 고생을 옛 이야기처럼 늘어놓으며 「애간장 석은 이왁(이야기)」을 술안주 삼는다. 심사에 따라서는 눈물도 고인다.

결국 「나차다」는 표준어 「나이차다」에 해당하는 말로, 〈적령기가 다 되었다〉나 〈나이를 어지간히 들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강영봉(국어국문학과 교수)

■오늘 만난 사람

'타이타닉과 금모으기 운동 …' 대자보 쓴 이은영(인문대 학생회 교육부장, 사학 2)학우

직배영화 보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봐야

"직배영화 타이타닉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최근 신문과 컴퓨터 통신 등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주인공 디카프리오의 매력에 대한 얘기 말고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경제사정을 감안해 영화를 봐서는 안된다', '문화를 즐기는 것은 한 개인의 자유이다' 등등…. 이러한 가운데 인문대 학생회(회장 강성윤 국어국문 3)에서는 지난 2월24일 인문대 1층 8116강의실 앞 게시판에 '타이타닉과 금모으기 운동-지금 통신에서는…'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내걸었다. 이은영(사학 2)교육부장을 만나 그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대자보화하게 된 취지는?

요즘 직배영화다 뭐다 해서 논란이 분분해 통신에 들어 갔더니 정말 의견이 다양했다.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이 직배 영화를 보기 전에 뭔가 알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해서 대자보화 했다. 직배사는 「타이타닉」과 같은 영화를 상영극장과 직접 계약을 통해 상영하고 6:4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6에 상당하는 비율의 수익이 직배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달러 손해가 막심하다. 아기 돌반지까지 내놓아 가며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도 직배영화 「타이타닉」이 전국적으로 관객 150만 이상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내심 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문화를 즐기는 것은 한 개인의 자유이다, 국수주의 아니냐?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영화 한편 보는 것에 나라 팔아 먹는 것처럼 얘기 하냐?"고도 하지만 청년학생·지성인이라면 생각해 볼 문제다.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배영화의 단면을 알려주고 영화를 보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랄 뿐이다. 주위 사람들과 서로 충분히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영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우리 한국영화를 봐야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전에 만드는 사람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언젠가 왕가위 감독 풍을 모방한 「홀리데이 인 서울」이란 영화의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왕가위 감독이 자기만의 영화풍을 보여주었듯, 한국영화도 한국영화만의 개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민영기자

아라광장

아라광장 이용 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

아라광장은 아라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게시판입니다. 어떤 소식이든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라광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방법
1. 대학원동 3층 제대신문 편집국
2. 통신이용 : 천리안(ID : CTSMS)
3. FAX : 56-2204

☎ 문의 : 54-2278~9

공연/전시

△연극동아리 극회오라비 주최 '진짜 신파극'= 3월21일 오후 7시, 22일 오후 4시·7시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

△J.P.C 신인전= 9일부터 13일까지 백두관 전시실.

알림

△대정향우회 '신입생 환영회' = 3월10일 오후 5시 사슴상 옆 음팡밭

△98학년도 제1학기 Mail Server 이용계정 (재)신청= 3월31일까지 전자계산소 시스템연구부로 신청바람(문의 54-2265)

모집

△아르바이트
인제사거리 화랑독서실에서 오후 8시30분부터 오전 1시30분까지 일할 남학생(군필, 1종면허) 구함, 문의는 57-8794로.

교수동정

△문충성(독어독문학과)교수=지난 2월14일 창립한 '민족문학 작가회의 제주도지회장'에 피선.〈왼쪽〉

△서경림(법학과)교수=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법시험 제 3차 시험 면접위원'으로 활동.〈오른쪽〉

△강영봉(과학교육과)부교수=3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회'에 참석.

△류재연(물리학과)부교수=3월 15일부터 21일까지 L.A.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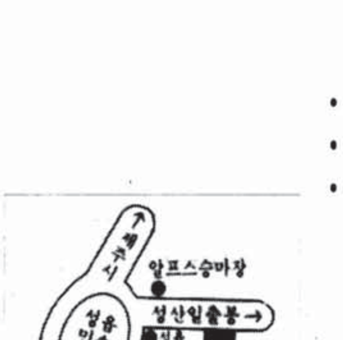
△천원기(에너지공학과)조교수=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저온활용을 위한 열회수 시스템의 설계 및 적용기술 습득 위해 중국 방문.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학과·학생회·동아리 M.T. 장소로 적합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 시설 안내 -

• 콘도형 숙소 • 식당
• 산책로 • 야외 무대
• 족구·배구장 • 캠프화이어장



사무실:(064)87-2343
F A X :(064)87-3666
핸드폰:011-691-4779
호 출:012-1047-4779

늘푸른리조트관광농원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450번지

※ 예약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멋진 대학생활을 원하신다면 ♩♪♬♬ …
학생생활연구소를 적극 활용 합시다
☆ 프로그램 안내 ☆

순위	프로그램명	기 간	요일·시간	지 도	인원	프로그램내용	신청 대상학생
1	P.C.P 1차 프로그램	9/9 ~ 10/31 주1회,8주과정 (16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15:00 ~ 17:00 18:00 ~ 20:00	김홍석·박소정 (과교2, 전산3) 강보서·하유숙 (법학3, 사학3) 박시홍·전정숙 (회계3, 사회2) 차혜숙·김지연 (독문4, 화학2) 김희석·김자경 (과교3, 건축1) 오경렬·문동춘 (영교4, 전기1)	1팀당 12명	1.자기소개하기 2. 대인관계 모델을 통한 이해 3. 느낌지각 4. 공감표현 5. 심화공감표현 6. I- Message전달 7. 집답상담 8. 마무리	제대인이면 누구나
2	P.C.P 2차 프로그램	·	·	이춘옥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제대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순실 (제주상담센타 상담원, 제대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경순 (학생생활연구소)	·	건강한 성격, 원만한 대인관계, 자유로운 자기표현 등을 위한 비구조화된 소집단 활동	P.C.P 1차 수료자
3	P.C.P 3차 프로그램	·	매주 화요일 15:00 ~ 17:00	원영숙 (제주도 상담자원봉사자 협의회 회장, 제주상담센타 상담지도부장)	·	집단원들간의 현재-여기, 나-너의 참만남을 통해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의 자각 및 활용, 타인에 대한 감수성 증진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 집단과정에 대한 민감성 등을 증진시킴	P.C.P 1차 수료자
4	가치관명료화프로그램	9/9 ~ 10/31 주1회,10주과정 (20시간)	매주 화요일 15:00 ~ 17:00	정성란 (한라전문대 강사,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계명대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15명	1.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2. 자유선택3. 대안탐색4. 결과고려 5. 가치형성과정 6. 긍지, 존중 7. 대외공언 8. 행동실천 9. 반복행동 10. 마 무 리	P.C.P 1차 수료자
5	모의취업면접 훈련프로그램	9/9 ~ 10/31 주1회,10주과정 (10시간)	매주 수요일 16:00 ~ 18:00	고강호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계명대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15명	1. 자기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2. 개별 면접 훈련 3. 집단 면접 훈련 4. 주제발표식 면접 훈련 5. 집단토의식 면접 훈련	제대인 재학생중 3·4학년
6	성 상 담 프로그램	9/9 ~ 10/31 주1회, 8주과정 (16시간)	매주 수요일 18:30 ~ 20:30	장경숙 (대정중학교 교사, 제대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15명	1. 자기소개 및 친밀감 형성하기 2. 남·녀의 신체구조 알기 3. 남·녀의 성심리 차이 알기 4. 이성교제 5. 직업에서의 성역할 태도 6. No Say Skill 7. 의사결정 8. 마 무 리	제대인이면 누구나
7	싸이코드라마	매월 1회	매수 셋째주 목요일 18:00 ~ 21:00	고강호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계명대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금순 (제주상담센타 상담원, 제대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통합하며, 역할 연기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연극처럼 대본이 있어 미리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을 내정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닌 지금-여기에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이루어진다.	제대인이면 누구나 (참가비 없음)
8	의미있는 만남	'96. 10월중	토요일(6시간)	박태수 (제대 사범대 교직과 교수,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지도부장)	20명	1. 자기소개 및 Orientation 2. MBTI 검사실시 및 채점 3. 성격지표 설명 4.성격유형별 소그룹활동및 발표 5. 의미있는 만남 나누기 1) 상호 감사한 마음 나누기 2) 상호 불편한 마음 나누기 3) 상호 바라는 마음 나누기 4) 역할 놀이 6. 전체 마무리	제대 교직원 (추후 접수)

〈 시선집중 〉
1. 참가신청은 '96. 8. 26일부터 '96. 9. 4일까지 입니다. (선착순 접수)
2. 각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료한자에 한하여 집중연수 프로그램,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TA의사거래분석 프로그램등 방학중에 특별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 Workshop을 실시합니다.
4. 신청장소는 학생생활연구소 행정실 (전화 54-2304) → 본관 3층 입니다. (참가비 : 5,000원)
5.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연구소와의 만남으로 "멋진 대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17회 백록학술상 인문과학·문학평론 분야 가작

지면관계상 전문을 다 싣지 못하고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편집자 주

현대예술가의 새로운 존재 방식 찾기
-양귀자의 '곰 이야기'

1. 동굴 모티프를 통한 재생의 의미

[곰 이야기]의 첫 부분에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의 건국 신화 중 '곰 이야기'가 콜라쥬 기법으로 인용되어져 있다.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신웅을 찾아간 곰이 신령스런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먹으면서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았더니 소원대로 여자의 몸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만큼 한국인의 정서 속에 이 곰이 인간화된 이야기는 깊숙이 베여있다. 동시에 현대인은 동굴의 의미를 단순히 '어둠침침하고 외부와는 단절된 어떤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굴은 때로 피난처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신성스런 장소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가 동굴 안에 들어갈 때 다소 경건함을 느끼는 것은 동굴 자체가 뿜어내는 어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동굴은 인간의 변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적인 배경이 된다. 이 변신에 대한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발견되어지는 인간 고유의 본성이다. '현재의 나가 아닌 다른 나'가 되고픈 욕망은 지위와 빈부의 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굴 속의 자아가 가지게 마련인 '어둠에서 밝은 세계로의 지향성'은 이 욕망의 본성과 동일하다. 이 작품의 서두에 제시한 이 '동굴 모티프' 즉, 변신 모티프는 이 작품 전체에서 주제를 향한 당김질을 계속하고 있다. 양귀자는 이 변신에 관하여, 현대 예술가의 새로운 변신에 대해서 동굴 모티프를 통해 넌지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신을 낳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그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한편, 이 작품의 끝 부분에는 '지네 이야기'가 등장한다. 천년 묵은 지네가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오다 목을 매어 죽으려던 선비를 구해주고 스스로는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역시 소재만 다를 뿐 마찬가지로 변신 모티프이다. 이 '변하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다. 천년을 유구히 흘러오는 동안에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이 간절한 욕망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우화적인 설화를 제시함으로써, 소설에 일정한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세 번 이혼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무명 화가와 재벌집 막내딸과의 결혼은 얼른 보기에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제시된 두 개의 우화적 설화를 등에 업고 은연중에 개연성을 확보해내고 있다. 곰이나 지네 같은 동물들로 표상된 변신의 욕구를 우화적 기법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욕망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오랜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의 뿌리 역시 그러함을 동시에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2. '집 구경'을 통한 변신의 구체화

이 작품의 플롯 체계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그의 아내와 집구경을 다니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인 '그'의 과거 삶에 대한 반추이다. 집구경을 다니는 이야기는 겉이야기로 액자에 해당하며, 그 액자의 사이사이에 과거 이야기인 내화가 끼여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네 번째의 결혼을 하게되는 무명 화가와 재벌집 막내 딸과의 결혼이 집 구경에 와서 비로소 소설다움이 느껴지는 것은 '집'이라는 소재가 갖는 보편적이면서도 한편 특수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오래 전부터 집은 '태생' 혹은 '부활'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래서 때로 집은 여성성 혹은 모성성을 상징한다. 동굴 모티프, 변신 모티프로서 제시되는 곰 이야기나 지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여성이다. 곰은 기(忌)하여 삼칠일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고, 지네 역시 여성성으로 표상된다.

집은 대다수의 중산층에게는 그들 삶의 최종적인 성과물이 하나로서 지칭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집에 대한 소유욕도 대단하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집 구경이라는 소재의 채택은 탁월하다. 변신이라는 아주 관념적이며 때로 우화적일 수 있는 소재를 집 구경이라는 보편적이고도 또한 필수적 행위를 통해 들어내 보임은 세련되어 보인다. 네 번의 집 구경은 그 자체가 패턴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패턴화된 집 구경은 그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집구경'이란 행위를 통하여 결혼 이후에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과의 대면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 네 번의 집 구경을 하게 되면서 그는 네 번에 걸친 그의 결혼 생활을 회상한다. 우연일지는 모르나 네 번의 결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강한 욕망을 건져 올릴 용기를 낸 것처럼, 네 번째의 집 구경에 이르러서야 그는 그 용기 있는 욕망 표출의 출구를 찾아낸다.

집 구경을 다니면서도 그는 그녀와 그 사이의 간극을 피하지 못한다. 그녀에게는 재벌집의 교양 있는 여성의 자태가 말하지 않아도 온몸에서 베어 나고, 자신에게선 아무리 부정하려 애써도 삼류 무명 화가의 전적이 묻어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여러 집을 구경하면서 그녀는 늘 그에게 앞서 집에 대한 소감을 물어왔다.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괜찮아'였다. 그건 긍정일 수도 부정일 수도 있었다. 그 '괜찮아' 속에는 그의 복잡한 상념,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혹 자신의 어떤 의사 표명에서 자신이 살아온 뒷골목의 시궁창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는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또한 어떤 때는 긍정으로 어떤 때는 부정으로 인식되는 그 '괜찮아'의 반복은 그가 새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어서 그녀와의 삶의 수단이기도 했다. 싫고 좋음의 명확한 선, 아니 그가 긋고 싶은 색깔의 선을 그을 때까지는 그 '괜찮아'가 모든 의사 표명의 수단이었다. 네 번의 집 구경은 결국 새로운 집을 스스로 짓겠다고 선언하면서 끝이 난다.

3. 과거의 예술가와 현대의 예술가

'그'는 지금의 아내인 '그녀'와의 결혼으로 새 인생을, 이전의 재혼과는 의미가 다른 삶을 위해 뛰어 들었다. 모두가 그가 주도한 일은 아니었다. 그의 네 번의 결혼이 모두 그러하였다. 여자 쪽에서 먼저 청혼을 했고, 그리고 이루어진 결혼이었다. 세 번째 결혼까지 파경에 이르렀을 때 주위의 누구도 그가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랬다. 세 번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에 허덕이는 그가 새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녀와의 결혼 전에 그는 세 번, 그것도 모두 그의 잘못 때문에 이혼을 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무명 화가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그녀와의 몇 번의 만남 이후에 그녀가 먼저 '우리 이제 그만 결혼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그녀로부터의 청혼을 듣고 그는 자신이 구제 불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독백하면서. 그러나 그는 며칠 동안 술 이외에 아무 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의 심연에 흐르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는 결국 〈지금의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나〉가 되기를 결심한다. 그는 아직은 그에게 생의 강한 욕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다. 천년 묵은 지네 이야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던 그에게도 그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변하고 싶다〉는 가히 인류사적인 욕망이 그에게 또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자크라캉은 그의 〈욕망의 이론〉에서 현대의 욕망은 획일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타인의 욕망'이란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삼류 무명 화가의 삶도 그러했을 것이다. 자신의 진실한 욕망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녀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던진 '이제 그만 결혼하는 게 좋겠어요'란 말이 그의 잠재된 욕망의 실체를 건드리게 된 것이고, 그는 그 물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흘간을 술 이외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본연의 욕망을 들춰내려는 노력을 한다. 자신에게, 세 번이나 이혼하여 그 누구도 그의 재생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그 자신에게 어떤 욕망이 남아있는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면서 알아내려고 한다. 그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욕구에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했다. 그의 욕망 분석에서는 '욕구의 긴박감과 발화된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나머지로, 차이의 결과로 욕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의 욕망 이론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무명 화가의 욕망체계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그에게 붙여진 세 번의 이혼 경력과 예술가로서의 무능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에게 갑자기 재벌집의 막내딸이 나타나서 청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그에게 충족에는 관심이 없었던 욕구가 발동되어 긴박함을 조성한다. 그리고 그 긴박감과 발화되어진 욕구 사이에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그는 그녀와의 새로운 인생을 결정한다.

무의식적인 욕망에 의해 지탱되었던 한 무명화가의 욕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욕구에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자크라캉의 주장대로 이 소설의 주인공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그 자신에게도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욕망의 모든 대상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이 타협안을 통해 주체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재벌 딸과의 결혼을 그의 인생의 타협안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타협이지 굴종이나 비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의 변신 욕구, 자신도 자신의 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는 그 심연의 욕망에 솔직한 인물일 뿐이다. 타락한 욕구를 숨긴 채 무의미한 비판만을 일삼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 나서는 방법을 그는 택했다. 그에게 잠재되어있던 욕망의 결여가 그녀와의 결혼으로 충족되는 순간이다. 그녀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욕망에 솔직함을 들어내는 것이며 동시에 주체의 진실에 눈뜸으로써, 제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황폐한 사막을 허우적 대면서도 그 사막을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한 무명 화가가 그 앞에 나타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는 그 사막을 건너갈 용기를 찾은 것이다. 그 오아시스가 그에게는 운명 같은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오아시스에서 사막을 너그럽게 바라다보면 오히려 사막이라는 현실 자체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진실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청혼을 거부하고 예전의 그 방탕함과 무절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발화 직전의 욕망을 억누르는 억압이며, 자격지심에서 오는 거부를 위한 거부일 뿐이다. 욕망(慾望)의 망(望)은 희망(希望)을 의미한다. 살아갈 날들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없이는 욕망도 없는 법이다. 그것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망 이외의 것을 향해 더 열려있는 말이다.

모방을 향한 욕구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모방 욕구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예술 영역을 창출시키고 유지시켜 오고 있다. 우화적 설화에 대한 모방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녀와의 결혼 전에 그는 가난했지만 예술가는 모든 부와 명예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 그래서 뒷골목 선술집에서 막걸리에 쓰린 속을 어루만질지라도 예술가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믿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투철한 예술관을 그의 삶 속에 반영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니다. 그저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기면 그것에 맞춰 술을 마시고 그 이외의 것에는 애정이 없었던 사람일뿐이다.

고정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25평짜리 아파트도 아내의 명의로 해야 했었고, 아내의 수술비도 그녀의 월급에서 쓰여져야 할만큼 그의 무능은 그의 전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이 혼탁해지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의 이혼에까지 이른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술가를 떠올리면 덥수룩한 수염에 일년 내내 갈아입지 않은 검은색 코트 그리고 술, 담배, 초췌함, 비정상적 등의 단어를 떠올린다. 사실 과거 반세기를 풍미했던 예술가들이, 전부는 아니라도 대다수 그러했음이 사실이다. 예술가라고 하면 모든 부나 명예로부터 초월된, 단지 자신의 작품 세계만이 인지되는 그러한 인간의 표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예술가는 몸은 비록 술에 찌들망정, 정신은 순수한 이상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다.

그러나 예술은 그 예술을 향유하는 대중 일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대중은 변하는데 예술은 과거의 그 영역 안에서만 맴돈다면 그것은 스스로 고여있는 물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변신 혹은 변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 그래서 더 가까이 대중 일반에게 다가가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타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의 친구는 과거 예술가의 표상이다. 변신을 추구하는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향해 '개새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는 인물이다. 그 친구는 스폰서를 받고 해외로 유학을 가는 동료 예술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뒷골목 대포집 대신에 비싼 음식점으로 가려고 하는 그의 친구를 타락한 삶의 주인공으로 치부한다. 그 친구는 어떤 부나 명예로부터 초월된 예술가의 순수성을 통해 진정한 예술가상을 모색하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뒤틀린 욕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친구와의 삽화 부분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한 사회적 통찰력과 함께 인간의 심리에 대한 날카로움이 돋보이고 있다. 그의 뒤틀린 욕망은 그 뒤틀림의 깊이가 더할 수록 그 역시 변하고 싶다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진다. 무엇에 초월할 수 없음은 그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동시에 내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친구를 보면서, 과거의 그 자신을 보게 된다. '자신이 어긋나 버리는 까닭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남한테 있다고 불평을 하며 사는데 익숙했다.'는 과거 삶에 대한 반추는 동정스럽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웅덩이처럼 고여 부패해가고 있는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 보기 두려웠던 시간들이었노라고, 그래서 비굴한 태도였지만, 그때는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더 비난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노라고 다시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독백한다.

현대의 예술가의 위치는 변화되고 있다.

현대의 예술은 그 주제나 소재에서 다양성을 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관을 또한 반영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예술이라고 명명되어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예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예술이란 매카니즘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자본과의 결탁을 완전히 저버릴 수 없게 되었다. 예술 역시 상품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의 병폐이다. 그러나 예술이 자본이라는 전략 속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예술가 사이의 갈등은 시작된다. 이 현실의 간극을 직시하여 자본과의 결탁을 꿈꾸는 사람은 그들 사이에서 부패한 예술가, 타락한 예술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본과의 결탁 방식이다.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그것을 타락이냐 새로운 출구냐의 전혀 새로운 길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현실과의 타협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며, 앞서 주인공인 '그'가 독백한 것처럼 변하는 세상에 웅덩이 속에 부패해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두려워 불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4. 새롭게 거듭남의 의미-건널 수 없는 강의 인식

그는 집 구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엔 25평짜리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수년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보는 것도 욕심에 차지 않아서 집안으로 그 자연을 옮겨다 놓으며 거기에 수 억의 돈을 쏟아 붓는 사람도 있다. 또한 오백년된 고가를 그대로 서울에 복원하여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모순이라고 해도, 사회적 부조리라 해도 그 강은 엄연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건널 수 없는 강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관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그 강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삶은 헝클어진다. 자아의 끊임없는 욕망과 현실과의 충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 강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흐르는 강줄기를 답습할 것이냐 새로운 강줄기를 찾아 나설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는 그녀와의 결혼으로 그 강을 훌쩍 건너왔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거기엔 또 다른 강이 흐르고 있었다. 결혼 전에 그는 그 강을 건너는 방식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네 번의 집 구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오래된 강을 답습하여 건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을 열어 가는 방법을 택한다. 그는 소설의 마지막에 스스로 집을 짓겠다고 독백한다. 그 자신 앞에 놓인 많은 강줄기들 대신에 그는 자신이 직접 건너갈 새로운 강줄기 하나를 찾아낸다. 이것은 답습이 아닌 새로운 자리매김인 것이다. 과거의 쑥과 마늘을 현대의 돈으로 혹은 물질적인 그 무엇으로 완벽하게 대치해서는 안된다.

그건 그야말로 타락한 욕망의 출구로서의 변신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의 예술가는 그 본령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가상을 그려야 한다. 그는 새 집을 짓는 것으로써 새로운 출구를 찾은 것이다. 그가 택한 새로운 땅 위에 그가 그은 설계도로 그는 새로운 그의 삶을 지어 올리게 될 것이다.

현대의 예술가상은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 표현하는 데 있다. 어떤 형태의 욕망이든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욕망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단지 그 욕망의 색깔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따름이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하기 위하여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맹목적인 타협이 아니다.

변화된 시대의 변화된 예술가상은 시대 순응적인 발상일지는 모르나 그것은 욕망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발전적이다. 변화되는 시대에 변화되는 가치관을 화폭에 담아내야 할 예술가들이 끝도 보이지 않는 과거의 가치관에 매달려 뒤만 돌아보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를 지키는 작업이 아니라, 인습의 계승에 불과하다.

그는 세 번째 이혼을 끝으로 그에게 남은 생의 욕망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술을 마시고, 미친 듯이 주정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 앞에 나타난 그녀는 그에게 신웅이고 천년 먹은 지네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네 번째 아내인 그녀는 자신이 천년 먹은 지네가 아니라, 그를 천년 먹은 지네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변신의 객체가 되어 준 것이었다.

"...전 내내 당신이 지네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천 년 동안 사람이 되기 위해 기다린 지네 말예요? 내가 지네라고? 천년 묵은 지네에게 단지 선택 당했을 뿐인 비참했던 선비가 합당했지 지네라고? 그는 허허, 웃으려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다. 그녀도 가끔은 불안한 모양이다. 그녀도 이 삶이 제비뽑기로 얻어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지네가 기다려야 했던 천년이란 기간은 어쩌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이 아니었을까?"

재벌 집의 막내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녀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있었다. 그녀 역시도 그 채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멍울져 있었던 그 욕망의 실체도 그를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욕망 역시 상대적인 것이다. 개개인의 욕망은 그 어떤 것도 재단(裁斷)하거나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 그와 그녀에게 천년을 기다린 최후의 때임을 인식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녀에게 동지애를 느끼게 된다.

....가장 첨단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멸망이 이야기되고,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연결한 끈이 사라져 버린 아슬아슬한 오늘이야말로 천 년을 다 채운 최후의 때가 아닐까. 그는 더욱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녀에게 동지애를 느낄 수 있을까.....

김소현(국어교육 4)

심사평

인문과학·문학평론 분야

인문과학 부문에는 모두 4편이 응모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우리대학교의 학생수를 고려할 때 4편이란 숫자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었다. "中國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愛情詩"와 "郭沫若과 그의 문학경향"은 기본적인 논문 형식에도 미달하는 것이었다. "李白의 생애와 그 飮酒詩"와 "제주도 설화연구"는 논문의 형태는 다소 갖추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업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목소리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연구범위 설정과 논지의 전개 방식, 연구 초점 등도 합리성과 적절성을 잃고 있어서 부득이 입선작을 내지 않기로 했다.

문학평론 부문에 응모한 작품수는 모두 3편이었다. "영웅의 허와 실 들여다 보기"와 "이미지 변형과 욕망의 작용"은 나름대로 치밀한 분석력을 보여주곤 있으나 아직 평론으로서의 형식과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들에 비해서, "현대 예술가의 새로운 존재방식 찾기"는 일단 문학평론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짧고 경쾌한 문장 속에 빛나는 감수성이 돋보였다. 차분한 어조로 작품을 깔끔하게 읽어내는 힘은 대견스럽지만, 자크 라캉의 욕망 이론을 보다 깊이 있게 육화시키지 못한 점과 논리의 가벼움이 아쉽게 느껴졌다. 제목과 주제를 밀착시키지 못해 그 사이에 논리적 거리가 끼어든 것도 당선작에 이르지 못한 근거가 되었다. 결국 양귀자의 [곰 이야기] 작품분석을 앞으로의 가능성을 굳게 믿고 가작으로 뽑았다.

사회과학 분야

1. 논문에서는 주의 주장의 부족.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논문이라기 보다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의 제기는 좋은데, 본론과 결론에서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의 주장은 있지만, 논리의 전개상 많은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사회과학 논문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론은 그에 관련된 논문에서 충실하게 서술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천 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3. 항상 지역의 현안문제와 연관을 시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료의 충실성을 더욱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적으로, 이번에 논문을 심사하면서 각주, 참고문헌 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대학의 공통적인 현실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일방적인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리포트를 부과할 때, 좀 더 강도높은 평가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분야

자연과학부분에는 모두 5편이 응모했다. 응모편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전공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제주도내의 윤충류 감염상"과 "생쥐의 간기능에 미치는 키토올리고당의 영향"은 주제의 독창성은 돋보였지만 논문체계 및 구성에서 고찰부분이 미약했고, 자료의 충실성에 있어서도 타 논문들에 비해 좀 미흡했다.

한편 "소 Infectious Bhinoteacheitis Virus의 Cell-ELISA 방법개발 및 제주도내 분포", "큰머리 돌고래의 육안적 해부학적 소견"과 "공공기관의 식기류의 위생 상태에 고나한 미생물학적 조사-식판, 숟가락, 물컵을 중심으로-"는 각각 주제의 독창성, 논문체계 및 수성 논리전개 기술 및 표현력 등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였다. 이 가운데 "소 Infect Bhinoteacheitis Virus의 Cell-ELISA 방법개발 및 제주도내 분포"는 다른 논문들에 비해 산업화 응용연구에 비중을 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정진하여 더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가작으로 뽑았다.

■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한석지(사회교육과 부교수) 본사주간 △인문과학·문학평론: 김종태(독어독문학과 교수), 안성수(국어교육과 부교수) △사회과학: 허향진(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진호(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자연과학: 강민수(동물자원과학과 교수), 송창길(농학과 교수)

제 17회 백록학술상 사회과학 분야 가작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으로 괄목하리만큼 성장하였고, 우리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따른 소비욕구 증대, 일회용품 사용 증대 등으로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이를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안 과제가 되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들의 음식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리, 처분하는 데도 일반쓰레기에 비해 발열량이 낮고, 수분함량이 많아 소각처리에도 부적합하며, 퇴비화·사료화하는 데에도 기술적인 문제나 법·제도적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서 소량만이 자원화되고 거의 대부분 매립처리되고 있지만 설사 매립한다하더라도 침출수나 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2차 오염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적정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시를 중심으로하여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은 관공서와 시민환경단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1차 자료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2차 자료는 기초자료 수집에서 얻은 신문, 통계자료, 관련 논문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기술부문이나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2차 자료를 많이 원용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Ⅱ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

1.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제주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995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29.2%인 147 톤/일이며, 제주시의 경우는 30.8%인 95 톤/일이 발생하고 있다.

2.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물기가 많고, 빨리 부패되기 쉬우며, 또한 악취가 나서 오랫동안 집안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음식물만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3.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1) 매립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95.1%가 제주시 폐기물 환경사업소에서 계량형 혐기성 매립을 하고 있다. 매립처리에 따른 침출수, 악취, 해충번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독, 차수막을 이용한 침출수 방지 등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2) 퇴비화

① 퇴비화 이론

미생물 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현상을 기계공학적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미생물 번식에 필요한 생활환경 조건인 영양분, 함수율, 산소, 온도, PH 값 등의 조건을 적정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속발효기에 의한 퇴비화

물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E·M발효제 등과 섞어 발효기에 넣어서 3~48시간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것으로 발효제에 대한 유효논란, 설치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③ 호기성 발효에 의한 퇴비화

발효제와 축산폐기물 등과 섞어 일정기간 동안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악취, 퇴비제조 비용 상승,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 염분문제 등을 안고 있다.

④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발효한 후 지렁이에게 먹이로 준 후에 지렁이 배설물인 분변토를 퇴비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렁이 성장을 위한 적정습도나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

(3) 사료화

음식물쓰레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직접 가축먹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간히 물로 씻거나 기존 배합사료를 섞어서 주고 있다.

(4) 소각

현재 제주시에는 대형소각장이 없어서 단지 소형소각로에서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소각되고 있으나. 앞으로 매립에서 소각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소각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처리시에는 에너지 소비를 많게 하며, 소각온도를 저하기켜 다이옥신이나, SO_2, CO 등 심각한 대기 오염물질이 생성된다.

(5) 분쇄기에 의한 감량화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음식물쓰레기 발생 즉시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하므로 대단히 편리하다. 이 방법은 하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6) 바이오 가스 플랜트

이 방법도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경기, 안양과 의왕시에서 시범설치되어 대단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 물과 가스를 온전히 분해해서 처리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는 전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한다.

Ⅲ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방향

1.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추진계획

제주시는 감량목표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확대 실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 및 시설설치,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급식학교 음식물 자원화·감량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홍보 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2. 개선방향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과 재활용 자원화하는 것이 있으며 아직까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주민 의식의 전환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발생원의 특성상 강제적인 법적·제도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물기 제거 등의 습관화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2)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수거체계 확립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기 귀찮고, 봉투가 비싸고, 분리해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수거용기 보급, 집하장 설치 등의 적정수거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3) 주민에 대한 적극적 교육과 홍보

기존의 인쇄물, 현수막 등을 이용한 주입식 홍보에서 벗어나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음식물쓰레기 관련 스티커를 주방에 붙여 항상 보면서 실천하게 하거나,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홍보 등의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4)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계설치에 따른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

현재까지 미비한 자원화 처리 기계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 자금융자, 조세감면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5) 감량화 부산물 처리를 위한 수요공급처의 연계방안

퇴비가 만들어져도 제대로 수요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거나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배출 주민에게 값싼 가격으로 되돌리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6) 퇴비화 기술에 대한 방향정리 및 기술개발이다.

아직까지 퇴비화 시설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금의 방법은 염분문제난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사용기피, 품질저하 등 전면 바꿔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므로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퇴비화 기술을 적극 개발,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다.

현재의 부산물 비료규격에 대한 등급화 규정과 중금속 함량 허용치를 강화해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퇴비의 수요처 확보에 대한 내용을 넣고, 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항을 만들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Ⅳ 결론

이상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보존과 자원 절약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최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계당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특정 단체나 정부의 힘만으로 그 성과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주체인 국민과 관계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법·제도적인 측면의 보완과 자원화 기술부문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실천의식을 가지며, 업계나 학계에서는 자원화 기계를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처리기계를 만들고, 퇴비화·사료화에 따른 염분문제 등의 체계가 구축되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때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기술적이나 법·제도적인 면에서 취약하여 단지 방향제시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학계나 관계당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좀 더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학협동연구회〉

제 17회 백록학술상 자연과학 분야 가작

소 Infectious teacheitious Virus의 cell-ELISA 방법개발 및 제주도내 분포조사

소의 전염성 비기관염(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의 병원체로써 BHV-1(Bovineherpes virus)인 소의 호흡기성 전염병으로써 고열과 호흡기계통의 급성염증, 괴사와 유산 등 송아지에서 가끔 뇌염을 특징으로 한다. 제주도에서 93년 이후로 IBR바이러스의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의심스런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 IBR바이러스가 분리되었고, 농가에 경제적 손실위험이 있으므로 본 실험의 의미를 두었다. 기존의 항체가의 조사방법으로는 혈청중화시험, 간접형광항체, 혈구응집억제반응 등이 있는데, 항체가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고자 좀 더 민감한 CELISA(Cell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방법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을 이용하여 IBR바이러스에 대한 제주도내 소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8개 읍면당 400두의 혈청을 56(C에서 30분간 비동화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IBR바이러스를 증식시키고 CELISA를 위한 항원plate를 만들기 위해 MDBK(Madin-Darby bovine kidney cell)를 사용했으며, 세포배양액은 D-MEM(Dulbecco ◎ Modified Eagle Medium)에 5% 우태아혈청과 antibiotic(100㎍/ml)을 첨가, IBR바이러스 역가 4*103PFU/ml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배양세포와 CPE(Cytopathic Effects)간의 색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양성으로 판독하였으며, 항체가가 1:160배 미만은 음성으로 간주하였다. CELISA test한 결과 400두중 양성 130(32.5%)두, 음성 270(67.5%)두로 나타났다.

KEY WORDS : BHV-1(Bovine Herpes Virus-1), Cell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MDBK(Madin-Darby bovine kidney cell)

재료 및 방법

혈청은 1997년 6월14일 제주도내 8개 읍면에서 사육중인 한육우400두의 혈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혈청은 56도에서 30분간 비동화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대조군 양성 혈청으로는 안양 수의과학연구소 갑[23])으로부터 받아 항체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으며 표준 POSITIVE SERUM 으로 공시하였다.

* Standard Positive Serum Titer of c-ELISA : 1: 1280 *

(표1 참조)

IBR바이러스는 안양수의과학연구소에서 분양 받았으며, 이 바이러스는 1970년 이후 농촌진흥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분리하여 계대한 A37주 표준 IBRvirus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분양받아 시험에 사용했다.

IBR바이러스로 증식시키기 위해 Madin-Darby bovine kidney cell(MDBK)을 사용했다.

세포 배양액은 Dulbecco ◎ Modified Eagle Medium(GIBCOBRL,USA)에 5%되게 우태아혈청(GIBCO,USA)과 antibiotic(100㎍/ml) 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Cell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CELISA)test는 Bkcell 10ml와 각 well당 40PFU가 함유되도록 바이러스를 혼합하여 96well flat bottom microplate(costar, USA)각 well당 100㎕분주하여 24시간 반응시킨 후 CPE(cytopathic effects)로 형성되면 4% formaldehyde용액으로 고정시켜 CELISA를 위한 항원plate로 사용하였다.

고정된 CELISA plate로 냉장보관(24시간 이상) 후 고정액을 버리고 1% triton X-100(Sigma, USA)용액 50㎕ 씩 각well에 분주하여 36(C에서 incubation시킨 후 1% fetal calf serum (FCS)가 함유된 phosphate buffer saline, pH7.5:PBS로 각well에 50㎕ 씩 분주한 후 30분간 incubation시킨 후 2배 계단 희석한 검사혈청 50㎕를 각well에 넣어 1 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4회 washing하였다. 다시 PBS로 1:500으로 희석시킨 anti-bovine IgG peroxidase conjugate(sigma, USA) 50㎕를 첨가하여 36(C 에서 30분간 incubation하였다.

이것을 PBS로 4회 washing한후 3-amino-9-ethylcarbazol 10mg을 2ml의 dimethylsulfoxide로 녹인 후 acetate buffer 50ml와 3% hydrogen peroxide(H_2O_2)1000㎕를 혼합하여 제조한 발색제 50㎕를 첨가하여 약30분 후 virus control에서 형성된 CPE주위에 적갈색이 나타나면 물로써 반응을 정지시키고 도립 현미경으로 판독하였다.

배양세포와 CPE간의 색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양성으로 판독하였으며 항체가 1:160배 미만은 음성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BHV-1항체 분포조사: 제주지역에서 사육중인 소에 대해 BHV-1감염사항을 CELISA법으로 조사한바, table(1,2,3,4,5)에서 검사혈청 400례의 검사혈청중 130(32.5%)례가 양성, 270(67.5%)례가 음성이 나타났다. 각지역에서는 남원이 31례가 양성으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한림은 2례가 양성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2·3 참조)

고 찰

199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2년까지만 예방백신을 접종해왔으며 1992년도 한육우수가 23,113마리 젖소의 수가 2,316마리에 대하여 소의 전염성 비기관염(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의 예방접종마리수는 4,875마리였다라고 보고된 바 있다. 제주지역에서 사육중인 소의 혈청400례에 대한 CELISA법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BHV-1의 양성이 130(32.5%)례로 나타났다. 각 읍.면 별로는 table2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남원(31두,6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한림(2두,4%)였다. 한림이 특히 낮은 이유는 넓은 목장으로 방목의 원인이추정되고 남원은 축사내에서 집단사육이 원인인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BHV-1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모든 임신소 및 어린소의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제주도내 서귀포 및 대정을 제외한 8개읍면의 한육우를 대상으로 BHV-1에 대한 감염사항을 파악하고자 혈청내 항체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주도내 사육중인 한육우 혈청 400례에 대한 CELISA법에서 항체 양성이 130(32.5%)례이고, 음성이 270(67.5%)례로 나타났다.

성환규·김상규·김상섭(수의 3)

가구당 마리수	개체선택수(마리)	성 별	연 령
30마리 이상 10-30마리 10마리 미만	[4] [2] [1]	[암컷(90%) 수컷(10%]	[1년 이상(80% 1년 미만 (20%]

〈표1〉-Sample 선택방법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한림읍	안덕면	남원읍	조천읍	성산읍
양성	34	32	48	4	26	62	48	6
음성	66	68	52	96	74	38	52	94

〈표3〉-8개읍면 항체분포

A	50	33	5	7	2	3
B	50	34	10	2	3	1
C	50	26	12	6	4	2
D	50	48	2	0	0	0
E	50	37	4	3	5	1
F	50	19	12	9	6	4
G	50	26	7	7	8	2
H	50	47	3	0	0	0
totel	400	270	55	34	28	13
(%)	100	67.5	13.75	8.5	7	3.25

〈표2〉.Detection of antibodies to BHV-1 in bovine sera by cell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No of sera with indecated CELISA titer Herds No of (1/80, 1/160, 1/320, 1/320, 1/640, 1/1280) tested (A:제주시 B:애월읍 C:구좌읍 D:한림읍 E:안덕면 F:남원읍 G:조천읍 H:성산읍)

제18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 분 야
- 주제논문(70매 내외)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 환경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70매 내외)-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

■ 시 상
- 주제논문 당선작 1편-50만원
- 일반논문 당선작 각 1편-50만원

■ 응모마감 :11월 1일

■ 제 출 처 :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 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모자격 : 우리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발표 : 11월 23일

■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54-2278~9)

제18회 백록문학상 현상공모

■ 분 야
- 시 : 5편이상
- 단편소설: 70매 내외
- 문학평론: 50매 내외

■ 시 상
- 시 : 당선작 1편-40만원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50만원
- 문학평론 : 당선작 1편-50만원

■ 응모마감 : 5월 10일

■ 제 출 처 :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문학상 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모자격 : 우리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발표 : 제대신문 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

■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54-2278~9)

시대를 바라보는 지성의 눈빛 제대신문사

신임학장 인터뷰

연구·면학 여건 조성 주력
학장실 개방 등 열린 행정 추구

▲취임소감은?

IMF 시대로 접어들고 재정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법정대 학장, 행정대학원장의 직책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다. 법정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재임기간 중 추진하려는 사업은?

법정대 교수 연구 여건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교수 연구자료를 구입, 비치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원어민 영어강좌를 법정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VTR 강좌에 각종 국가고시 과목을 개설해 고시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고시반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겠다.

▲올해 신입생 등록 마감 결과 가장 낮은 등록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법정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법정대가 젊은이들의 포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알차고 충실한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것이 선행돼야 낮은 등록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대 학장
윤양수 법학과 교수

▲법정대의 당면문제와 그 대책은?

가장 큰 문제는 공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로 생긴 언론홍보학과 과방 문제, 교수 연구자료실 등 연구 여건 향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단 학장실과 대학원장실을 통합해 여유 공간을 교수 연구자료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학생들을 위한 공간 시설 확충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의견수렴을 위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학장실을 모든 법정대인을 위해 개방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법정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법정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법정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김종희기자

외국어·전산 능력 향상에 적극 지원
자신감 갖고 난관 헤쳐 나가길

▲. 취임소감?

학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지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역량을 다해 임하려고 한다.

▲ 운영방침은?

무엇보다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 한다. 우선 공간부족 등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는 대학당국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공부와 교수님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행정실, 과방, 학과사무실 등은 공간을 줄여 재조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경상대 구성원들이 당분간 불편하더라고 양보하고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고시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기관과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취업대책은?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의 세계경쟁시대이다. 원어민 교사와 전산교육 전문인력 및 전산시설을 확보해 경상대 학생이면 누구나 외국어와 전산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경상대 학장
고경표 무역학과 교수

▲ 고시반 활성화 방안은?

현재 현황파악 중이다. 무엇보다 고시반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이다. 그동안 거의 공인회계사 중심으로 고시반이 흘러가는 경향이었는데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겠다. 또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 특강도 실시할 생각이다.

▲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젊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자신감을 갖고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본분에 충실하고 개인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성실하게 매진했으면 한다.

송경은기자

깊이 있는 학문체제 활성화에 중점
학생들로 적극적으로 교수 활용하길

▲취임소감은?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더 쏠리기 때문에 '기쁘다', '좋다'라는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다.

▲재임기간 중 추진하려는 사업과 운영방침은?

단과대는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요새 우리대학의 경영 방침이 변혁을 추구하고 있어 이를 따르는데 사업의 비중을 두고 있고, 또한 학생들이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학과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더 깊은 학문체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해양대 학부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학부제를 도입하기에는 독자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밑바탕이 돼있지 않다. 외국 대학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수 1인당 10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교수 1인당 40~5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이런 체제에서는 학부제가 힘들다. 또한 학부제 시행 초기에 정부당국이 약속한 여러 가지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해양대 학장
이기완 증식학과 교수

▲해양대의 당면 문제와 그 대책은?

해양 산업은 1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활발히 경쟁하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아직 우리 해양대는 그러지 못한 느낌이다.

또한 재정적 문제도 학교의 사정으로는 충분히 지원 받기가 힘들고, 도에서도 관광산업과 감귤 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양 산업이 재정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연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소홀해지기 쉽다.

따라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교수를 대했으면 한다. 장사꾼같은 얘기일지 몰라도 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왔으면 본전은 찾고 가야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교수들을 활용해 배웠으면 좋겠다.

▲해양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공 학문에 소홀하는 학생들이 많다. 해양대 학생이라면 놀러가더라도 바다로 가고, 음식점에 가도 꼼장어 파는데 가는 별난 특징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학문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

송은실기자

적합한 부속병원 부지선정에 최선
교수진 확보·학술교류로 미흡한 교육여건 보완

▲ 취임 소감은?

작년 4월부터 우리대학교 의과대개설추진위원장을 지내왔다. 그래서 학장으로 임명받고 별다른 소감은 없다. 그저 초대 학장으로서 의과대학 발전에 이바지할 생각이다.

▲ 의과대학 운영방침은?

모든 의과대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다.

▲ 의과대 건물 및 대학병원 설립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의과대 기본시설 건축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설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문제는 부지선정인데 의과대는 특성상 부속병원과 같은 테두리 내에 위치해야 임상실습과 강의,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3차 진료기관으로서 대학병원은 제주시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 도내 일간지에 교육부가 부속병원의 바람직한 규모를 2백 50병상으로 판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부속병원 설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부속병원 설립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96년 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부속병원 규모는 5백 병상이 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렇듯 병원 규모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비교 검토 작업을 통해 적절한 병상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의과대 학장
장가용 의학과 교수

▲ 현재 의과대 교육여건은 어떤가?

의학과 1학년생을 위한 실습기자재 및 강의실은 모두 마련돼 있어 수업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다만 교수 확보를 다 하지 못해 당분간 초빙강사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일은 신설대학이면 어디에나 있는 문제이다.

▲ 지금 본과 1학년이 3학년이 되면 임상실험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협상과정에 있다. 이들 병원이 3차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에는 새로운 부서를 개설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울대 의과대와 학술교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 의과대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성과 실력을 기르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새로운 의학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게 외국어 실력도 쌓아두기 바란다.

김영균기자

책을 열자 미래가 보인다

학생회관 2층에
지성인의 양식이 있습니다.

구내서점 (학생회관 2층) ☎55-6035 · 54-2383

'98년 센스있는 선택으로 대학생활이 든든해집니다!

고성능 멀티미디어 노트북PC 센스 아카데미 600

파워풀한 스피드 컴퓨팅
▶150MHz MMX 펜티엄 프로세서
▶16MB EDO메모리/512KB 캐쉬메모리

PC통신도 인터넷도 막힘없는 초고속 통신
▶33.6Kbps 고속팩스모뎀 기본내장
▶별도의 커넥터 없이 전화선에 바로 연결

탁월한 그래픽 성능 구현
▶고성능 64비트 PCI 그래픽 엔진
▶2MB의 EDO 비디오 메모리
▶외부모니터 연결시 1280×1024화면 지원

테이터 검색에서 동영상까지 초고속으로
▶20배속 착탈식 CD-ROM 드라이브
▶CD-ROM과 FDD동시 사용 지원
▶착탈식 FDD및 FDD 외장케이블 기본제공

팡팡튀는 멀티미디어 사운드
▶SRS 3D, 16비트 스테레오 사운드
▶마이크와 스테레오 스피커 내장

구입부담이 팍~ 줄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다양한 계약금 선택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

삼성멀티 프라자
TEL : 52-4488
시청 인제 남문파출소 법원 신제주 본점 중앙로 광양R